보건학 석사 학위논문

신종 감염성 질환 언론보도 프레임
- 신문의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 1면 텍스트/시각적 정보 내용분석 연구

News Framing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 A Content Analysis of Front Pages of Korean Newspapers' H1N1 and MERS Outbreak Text / Visual News Coverage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박 이 스 리

신종 감염성 질환 언론보도 프레임
- 신문의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 1면 텍스트/시각적 정보 내용분석 연구

지도교수 유 명 순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5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박 이 스 리

박이스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6 월

위 원 장	김 창 엽	(인)
부 위 원 장	조 병 희	(인)
위 원	유 명 순	(인)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처하는 언론 보도의 실천적 대안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를 사회동원론적 관점(The Social Mobilization Perspective)에서 고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10개 종합일간지 1면의 신종플루와 메르스 관련 기사 1,090건을 대상으로 진단(diagnostic), 예후(prognostic), 동기(motivational) 프레임 유목을 적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텍스트 프레임은 진단 프레임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후 프레임이 그 뒤를 이었고 동기 프레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정보에서도 텍스트와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진단에 가장 역점을 두고, 향후 대응 관련 사안, 즉 예후 프레임과 위기 대응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는 동기 프레임은 미미했다. 또 감염성 질환에 대한 물리적·사회적 대응이 질병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보도의 단계를 구분해 프레임이 달라지는 가를 봤다. 그 결과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프레임은 위기 진행단계 별로 진단, 예후, 동기 프레임간의 양적 우위의 순서가 달라지는 않은 채 모든 시기에서 진단 프레임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진단 프레임이 건강 위기의 초기인 위기 점증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데 반해, 예후 프레임이 위기고조 단계에서, 동기 프레임은 소강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시각적 정보의 프레임도 위기 단계별로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유일한 차이는 동기 프레임을 가진 사진, 그래픽은 텍스트처럼 소강 단계가 아니라 시기가 지날수록 증가해 위기 종료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자면 감염성 질환 발생의 모든 단계에서 진단 프레임이 두드러진 것은 언론이 발생 성 기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문제는 신종플루 보도 프레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2015년 발생한 메르스 보도에서도 확인되면서 언론보도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보도 단계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해 보면 초기에는 진단, 위기 고조 단계에서는 예후, 위기의 종료 단계에서는 동기 프레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이 감염성 질환 발생 초기에 진단 프레임을 활용해 새로 발생한 문제를 조명했으며 질병 확산 및 위험이 최고조로 이른 시기에는 사회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보도의 소강 단계에서 동기 프레임이 나타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은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언론이 대중을 응집시키고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언론이 단순히 진단 프레임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단계에 따라 예후와 동

기와 같은 프레임을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언론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의 현실적 함의 모색과 실천적 지침 제공이라는 언론 보도 프레임 연구의 목적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유용성을 확보했다. 둘째, 프레임 분석 대상으로 시각적 정보 기사를 포함함으로써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 연구의 영역을 확장했다. 셋째, 언론 보도를 위기의 단계별로 나눠 프레임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보도를 포함한 정부 등의 커뮤니케이션 대응이 물리적 방역과 상호작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어 :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진단/예후/동기 프레임, 시각적 정보 프레임, 위험 커뮤니케이션, 사회동원론적 관점

학번 : 2016-24025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1. 서론

환경파괴와 기후, 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한 신종(emerging) 및 재출현(re-emerging) 국외 유입 감염성 질환 발생이 증가 추세다(Jones et al,. 2008). 신종 감염성 질환은 '과거 20년간 사람에서 발생이 증가한 감염병과 가까운 미래에 증가가 의심되는 감염병' 으로 정의되는데 발생 시기와 강도를 예상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개인의 보건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으로 존재한다(Jones et al., 2008).

한국 정부는 감염성 질환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개인의 외부활동과 사회·경제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제재는 환자의 감시와 입원치료, 강제 처분,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자가격리, 이동 제한, 학교 휴교, 대규모 행사 취소, 업무종사 일시 제한 등을 포함한다. 특히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은 개인의 인권 및 자유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 생활에서의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공공장소 이용 자제 등과 같은 생활습관 관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자발적 '협조' 와 '참여' , '지지' 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armet, 2010; CDC, 2011; Braunack-Mayer, 2010; Kiniaw & Levine, 2007).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행동을 개인 및 인구집단에 매개하는 것과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Schudson, 1994). 여기에는 예방 행동을 포함하는 행동 변화 유도와 사회적 통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지지, 문제 해결 과정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Schudson, 1994; Smith, 2006). 나아가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하며 질병 극복 이후 사회의 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학과 대중, 여론 및 정책의 접점으로 역할 할 수 있다(Nikora, 2008; Covello et al., 2001; Kizinger, 2000).

그러나 신종 감염성질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언론이 일화적(episodic), 선정적, 공포소구가 과장된 정보를 집중 보도한다는 경향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Wallack et al., 1993; 백선기, 2009; 김원제, 2009; Smith, 2006; Medeiros & Massarani, 2010; Hong, 2013; 이귀옥, 2015). 이러한 연구들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작용하는 언론을 순기능을 배제하고 부정적 기능에 한정해 관찰했기 때문에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와 같은 연구 결과의 향후 활용 가능성을 제한한다. 이는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를 다루는 연구의 대안적 연구 문제 개발과 분석의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감염성 질환 유행 상황에서 대

중이 언론을 통해 원하는 정보가 예방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김선호 & 양정애, 2011; Wong et al., 2013)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 방향은 제공되는 정보에 초점을 맞췄을 때 결과의 활용에 있어 유용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학의 동원론적관점에서 제기되는 합의동원 프레임(진단/예후/동기)을 지난 20여년 사이 한국에서 유행한 신종플루와 메르스 관련 보도에 적용해 분석해봄으로써 (1) 기존 보도 경향과 향후 보도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2)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의 대안을 제시하며 (3) 전략적 프레임 활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가. 신종 감염성 질환 특징

감염성 질환(Infectious Disease or Communicable disease)은 '어떤 특정 병원체 혹은 병원체의 독성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으로 이 병원체 혹은 독성 물질에 감염된 사람, 동물이나 기타 병원소로부터 감수성 있는 숙주(사람)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전파되는 질환' 으로 정의된다(Rathore et al., 2017). 이 중 신종 감염성 질환(Emerging Infectious Disease)은 '과거 20년간 사람에서 발생이 증가한 감염병과 가까운 미래에 증가가 의심되는 감염병' 으로 분류되는데 출현(Emergence)은 새로운 병원체의 확산과 전염을 의미한다(Rathore et al., , 2017). 특히 바이러스성 병원체의 돌연변이 오류 수정 능력(mutation error-correction ability)이 낮은 반면, 인체를 포함한 새로운 숙주 적응 능력이 높아 대유행(pandemic)을 피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Jones et al,. 2008).

감염성 질환의 일반적인 전파 경로는 접촉(contact), 비말(droplet), 공기(airborne) 등이 있다(Siegel et al., 2007). 공기 중에 떠다니는 병원체가 건강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침입, 감염하는 것을 공기감염이라고 하며, 접촉 감염은 사람간의 직·간접 접촉으로 병원체가 전파되는 경우다. 보균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대화 도중 튀어나오는 작은 침방울 속의 병원균을 통해 체내에 침입, 감염하는 것을 비말감염이라 한다(Siegel et al., 2007).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으로는 2003년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 캐나다, 한국에서 유행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2009년 한국을 포한함 전 세계에서 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이하 신종플루), 2015년 중동과 한국에서 유행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가 있다. 이렇듯 감염성 질환은 사람들간의 접촉 환경에서 전파되며, 특히 한국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그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Hui et al., 2015). 특히 감염성 질환 발생의 기여 요인으로 지목되는 변수는 도시화 및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동물매개 변이, 미생물 유전자 변이, 국제 교류 및 여행 증가, 경제개발 및 토지이용 증가, 감염에 대한 인간 감수성 변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기아, 전쟁 등 사회 경제적 환경 등 다양하다(Jones et al,. 2008; Rathore et al., 2017; WHO, 2005; Mackey et al., 2014). 즉 신종 감염성 질환의 발생과 전파는 사회·경제, 환경, 생태 등 다양한 요인들과 조건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원인이나 병원체의 형성 및 위치, 발생규모, 경로, 감염력, 생존력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건강의 영역에서 불확실성은 통제력이 낮고 대비가 불가능하며 위험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고위험으로 분류된다(Freudenburg, 1988). 특히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 불특정 하거나 광범위한 위험은 공포와 불안과 같은 감정을 유발시키는데(Freudenburg, 1988), 감정요인은 위험(risk)이 내포한 위해(hazard)와 결합해 상당한 폭발력을 갖는다(Sandman, 1987; 1989). 이러한 감정은 심리적 우울, 무력감,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외감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인지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상황인해 및 해결 방법 모색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Mishel, 1988; Elderd et al., 2006; 이동훈 et al., 2016). 이런 이유로 WHO는 신종 감염성 질환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질병일수록 빠른 발견과 방역에 각국의 공중보건 역량이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WHO, 2005). WHO는 2005년 글로벌 인플루엔자 대비 계획(WHO global influenza preparedness plan)에서 회원국이 신종 감염성 질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역량을 갖출 것을 권고하며 다음 5가지 작업을 명시하고 있다 : (1) 계획 및 협동(planning and coordination) (2)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situation monitoring and assessment) (3) 예방 및 봉쇄(prevention and containment) (4) 보건 시스템 대응(health system response (5)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s). 또한 2013년 건강위기재난관리(Emergency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for Health, ERMH)지침을 통해 모든 신종 감염성 질환 대유행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분야간의 연계, 범정부 및 범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이때 언론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은 역학 조사, 방역과 같은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보건 사회적 접근의 심리적 방역을 제공할 수 있다(WHO, 201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p.72).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제공되는 적절한 정보는 위험 인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험 판단을 내리고 대처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unwoody & Peters, 1993). 또한 감염성 질환 대응에 필요한 신뢰 및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요구되는 행동을 정당화 하며 사회적 치유와 변화를 촉구하면서 위기의 극복 이후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Reynolds & Seeger, 2005). 따라서 감염성 질환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기능, 대안을 점검하는 작업은 새로운 감염성 질환 발생의 증가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현대 사회에서 인구집단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다.

나. 프레임 연구

1) 프레임(frame) 정의

미시 사회학자 Goffman이 주장한 프레임의 정의는 21세기의 신종 감염성 질환 유행 시대에도 유효하다. Goffman(1974)은 프레임을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primary framework)' 이자 '해석의 스키마(schemeta of interpretation)' 라고 정의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의미를 파악하고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context), 배경(background), 상황 규정(definition of situation)과 같은 자신의 행동을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 개인의 경험을 '분류 및 해석의 체계(scheme of classification and interpretation)' 의 어느 한 범주에 귀속(categorization)시킨다. 때문에 프레임은 '조직적 전제(organizational premises)' 일 수 있으며, 나아가 '마음과 활동에서 지속될 수 있다(sustained both in the mind and in activity)' (Goffman 1974, p.247). 즉, 프레임은 개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의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행동과 그 행동의 조직방식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Goffman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정의한 이후 언어, 심리, 사회, 정치 등 인문사회영역에서 확산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현실의 사회적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중요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프레임 개념은 Tuchman에 의해 미디어 분야로 확장되었다. Tuchman(1978)은 프레이밍(framing)을 '언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도구' 로써 '현실을 특정한 관점에서 의미화 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보도 텍스트가 보도 제작자와 조직의 일상화된 규범에 따라 제작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이들은 보도를 선택하고 가공하며 편집해서 수용자에게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로 제시한다. Tuchman(1978)이 재정립한 프레임의 개념은 Goffman(1974)이 프레임을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본 것에서 확장해 미디어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현실의 사회적 구성론[1] 접근으로 재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송용희,

1) 현실의 사회적 구성(혹은 실재의 사회적 구성 ·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은 Berger & Luckman(1967)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사회적 실재는 자연적 실재가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구성체라는 것이다. 개인은 이러한 주관적 의미를 자신의 모든 행동에 결부시킨다. 그리고 의미들은 이데올로기, 신념체계, 도덕 규범, 제도와 같은 문화적 산물들 속에서 객관화 된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현실의 사회적 구성수단의 효과적인 도구다. 이때 언론은 불특정 다수(unspecific mass)에게 인지와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문화와 시대, 공간 등을 공유하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현실의 사회적 구성을 관찰하기 좋은 자료라고 여겨진다(임미영 et al., 2010).

2005).

Tuchman 이후 프레임의 개념은 뉴스 내용의 특징과 생산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활용되면서 언론이 현실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로 구체화 됐다. 특히 현실묘사 매커니즘과 같은 미디어의 사회적 재구성 역할이 수용자의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겨지면서 미디어 분야에 프레임을 원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Gamson, et al., 1992). Gamson은 프레임을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자다. 그는 프레임을 사회적 이슈와 문화와의 연관성에 주목했는데 뉴스프레임이란 하나의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주제 구성의 중심적인 견해' 이며 따라서 뉴스 프레임은 사회적 이슈와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해석적 패키지(interpretive packages)라고 정의했다(Gamson, 1992).

Entman(1991)은 프레임 정의 및 함의에 대해 구체적 분석 기법을 도입하면서 의미와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그는 1983년 구소련 전투기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추락시킨 사건과 미국 해군이 이란 항공을 추락시킨 사건을 미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유사한 특징을 지닌 현실에 대해 뉴스 구성을 전혀 다르게 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Entman은 언론이 현실에 대해 특정 측면을 선택(selection)하고 강조하며(salience) 선택된 일부 측면을 특정 문제에 대한 개념규정(problem definition), 인과관계 해석(causal analysis),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 해결방법의 제시(remedy promotion) 하는 과정을 프레이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같은 내용이라도 특정한 관점에 따라 프레임을 달리하며 전체 이슈 전개를 상이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Entman, 1993; Pan & Kosicki, 1993).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대중의 담론 형성도 다르게 조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Entman, 1993; Price & Tewksbury, 1997; Nelson & Oxley, 1999; Bloch-Elkon, 2007; Bratić, 2006; Catalan-Matamoros, 2011). Entman의 관점은 프레임의 영향이 비단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나 국가 수준으로 그 파급효과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리해 보자면 프레임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에 의미를 형성하는 중심 생각 또는 스토리 라인으로 특정한 논쟁과 이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Gamson & Modigliani, 1989). 언론의 관점에서 프레임은 보도를 통해 주요 이슈가 선택되고 강조, 제외되는 패턴으로 볼 수 있다(Gitlin, 1980; Iyengar, 1991). 이러한 패턴은 인과관계 해석, 도덕적 판단, 해결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Entman, 1991). 결국 프레임 정의 확립 및 개념의 확장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 프레임은 개인의 행동 영역에서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내포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미 프레

이밍된 건강 관련 보도가 개인적 수준에서 태도 변화와 공중보건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건강행동과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s)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축적하고 있다(Hutchings, 2003; Dorfman, 2005). 이러한 결론은 결국 프레임 연구에서 수용자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및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2)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 연구

신종 감염성 질환의 유행과 같은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없는 개인은 높은 불확실성을 상쇄하고자 정보욕구를 가빠르게 상승시킨다(Mishel, 1981; 1988). 이때 주로 찾는 정보원은 TV, 신문, 라디오와 같은 미디어로 보도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지 결정한다(Singer & Endreny, 1993; Young et al., 2013; Tewksbury & Scheufele, 2007). 따라서 즉각적인 행동 참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 유행 상황에서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는 단순한 위험 정보와 피해 상황을 넘어 예방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과 대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WHO, 2005; Covello et al., 2001; Covello, 2003; Freimuth et al., 2000).

이러한 배경에서 언론 보도의 프레임 유목을 살펴보는 것은 프레임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관찰하는 연구와는 별도의 연구 가치가 있다. 프레임 유목을 설정하고 보도를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특정 이슈나 사건 보도에 대한 뉴스 구성이나 그 방식을 관찰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현실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겨진다(Gamson, et al., 1992; De Vreese,, 2005). 이때 보도에 내포된 프레임 유목을 도출하거나 구분하는 과정은 보도가 구축한 사회의 측면을 관찰하는 방법이며 연구 결과의 해석과 활용은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준웅(2000)은 프레임 연구의 결과가 현실적 함의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실천적 지침을 제공할 때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웅(2000)의 견해에서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관찰해 보면 상당수 결과가 유용성의 한계를 갖는다. 대부분의 연구가 감염성 질환 보도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와 현상기술에 초점을 맞추면서 프레임이 갖는 실천적 함의 즉, 수용자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는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의 프레임 유목을 정리한 [표 1]을 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책임, 인간적 흥미, 경제적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프레임은 Semetko & Valkenburg(2000)[2]가 미국과 유럽의 언론 보도를 리뷰하는 방식으로 분석해 도출한 결과로 기자들이 보도 작성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이다. 정치·사회적 갈등 보도 분석 연구에서 인용되며 언론이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특정 측면을 조명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2) Semetko & Valkenburg(2000)의 연구에서 도출한 프레임은 총 5개로 다음과 같다 : 갈등(conflict), 인간적 흥미(human interest), 경제적 결과(economic consequence), 도덕성(morality), 책임 귀인(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있다.

예를 들면 책임귀인(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Human Interest), 경제적 결과(Economic consequence), 심각성(Severity) 네 개의 프레임 유목으로 2003년 미국과 중국 언론의 사스(SARS)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Beaudoin(2007)[3]의 연구는 중국 언론이 감염성 질환 발생과 확산의 해결의 주체를 찾기 보다는 경제적 결과와 인간적 흥미 프레임 위주의 보도로 당의 책임을 배제 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의 정치적 편향이 건강 관련 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하지만 신종 감염성 질환과 같은 건강 위기 상황에서 수용자에 미치는 정보와 그러한 정보의 행동적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 Hong(2007), Gao et al., (2011), Wang et al., (2010), Gadekar et al., (2014)의 연구는 감염성 질환의 유행 상황 또는 질병 자체의 심각성을 프레임 유목으로 다루고 있다. 심각성(severity) 프레임은 질병 발생 규모나 사망자, 위험에 처한 대중을 묘사하는 보도가 수용자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심각성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들보다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언론보도가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가 감염성 질환 그 자체보다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상황' 에 초점을 맞추면서 심각성이 과장됐다고 설명했다(Gao et al., 2011; Sandell et al., 2013). 특히 예방에 관한 정보 없이 심각성만 강조된다면 수용자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된다(Chang, 2012). 불확실성(Uncertainty), 위험(Risk), 현황, 공포 및 패닉(Fear and Panic) 프레임 등을 유목으로 둔 연구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예방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과 대처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프레임은 일부 연구에서 발견되는데 Shih 외 (2008), Gao 외(2011), Oh et al., (2012)의 연구가 '행동(action)' 에 관한 유목을 두고 있고 Lee & Basnyat (2013)의 연구는 예방적/ 치료적 정보에 관한 프레임을 두고 있다.

종합해 보면 선행 연구들은 프레임이 수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정보전달의 기능임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연구자들은 보도가 위기 상황

3) ① 책임귀인 프레임 :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 대응 등과 관련된 주체의 책임을 조명하는 경우 ②인간적 흥미 프레임 : 개인의 스토리나 각색된 서사 구조를 갖는 기사 혹은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을 포함하는 사진과 함께 제시된 경우 ③ 경제적 결과 프레임 :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영향을 조명한 경우 ④심각성 프레임 : 발생 및 확산 규모, 감지된 위협, 심각도 등이 제시된 경우.

에서 수용자의 위험인식에 적절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했는가를 탐색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감염성 질환 유행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중의 참여와 협조, 수용자의 예방행동을 매개하는 언론 보도의 순기능이 고려되지 않으면서 연구 결과의 활용에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는 감염성 질환 보도를 다루는 연구의 대안적 연구 문제 개발과 분석의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선행 연구 프레임 유목

구분	연구자	프레임 유목
사스 (SARS)	Luther & Zhou (2005)	책임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 (Human interest) 경제적 결과 (Economic consequence) 갈등 (Conflict) 리더십 (Leadership)
	Hong (2007)	책임귀인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 (Human interest) 경제 (Economic) 건강심각성 (Health severity) 부인 (Denial)
	Beaudoin (2007)	책임귀인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 (Human Interest) 경제적 결과 (Economic consequence) 심각성 (Severity)
	Hong (2012)	주제 (Thematic) – 일화 (Episodic) 안전 (Customer safety) 회상에 대한 우려 (Worries about recalls) 공포에 대한 우려 (Not to Fear) 시스템 붕괴 (Broken system)
	Oh & Zhou (2012)	책임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 (Human interest) 경제적 결과 (Economic consequence) 갈등 (Conflict) 위험 (Risk)
신종 플루 (H1N1)	Shih, Wijaya, & Brossard (2008)	갈등 (Conflict) 새로운 근거 (New evidence) 불확실성 (Uncertainty) 안심 (Reassuarance) 결과 (Consequences) 행동 (Action)
	Medeiros & Massarani (2010)	질병 통제 (Disease control) 질병 확산 및 현황 (spreading of the disease / suffering) 개인적/인간적 흥미 (Personalization / Human interest) 연구 및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과학 · 의료적 배경 (Scientific medical background) 경제적 영향 (Economic impact)
	Gao et al (2011)	비난 및 책임 (Blame and Responsibility) 경제적 결과 (Economic Consequence) 갈등 (Conflict) 행동 (Action) 새로운 근거 (New Evidence)

		심각성 (Severity) 안심 (Reassurance)
	Liu, B. F. & Kim, S. (2011)	일반적 위험 (General crisis) 재난 (Disaster) 건강 위기 (Health crisis) 일반적 건강 이슈 (General health issues)
	주영기 & 유명순 (2011)	진단 예후
	김효경 & 권상희 (2011)	주제 (Thematic) – 일화 (Episodic) 원인 경제적 결과 공중의제 재난인식
	Oh et al., (2012)	책임귀인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새로운 근거 (New evidence) 불확실성 (Uncertainty) 안심 (Reassurance) 결과 (Consequences) 통계 (Bare statistics) 행동 (Action)
	Liu & Han (2013)	책임귀인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 (Human interest) 경제적 결과 (Economic consequence) 갈등 (Conflict)
	Lee & Basnyat (2013)	기본적 정보 (Basic information) 예방적 정보 (Preventive information) 치료적 정보 (Treatment information) 의학적 연구 (Medical research)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 경제적 맥락 (Economic context) 개인적 스토리 (Personal stories) 주제 - 일화 (Thematic – Episodic) 감정적 호소 (Emotional appeal) 이득 (Gain)- 손실 (Loss)
	Sandell, Sebar, & Harris (2013)	주제 (Thematic) – 일화 (Episodic) 책임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 (Human interest) 경제 (Economic) 위험 규모 (Risk Magnitude) 자기 효능감 (Self efficacy) 선정성 (Sensationalized) 불확실성 (Uncertainty)
	Lee (2014)	이득 (Gain)- 손실 (Loss) 감정 호소 (Emotional appeal) 발생 상황 (outbreak situation) 주제 (Thematic) – 일화 (Episodic)

	Gadekar (2014)	책임귀인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 (Human interest) 공포 및 패닉 (Fear and Panic) 심각성 (Severity) 안전 (Safety) 과학적 정보 (Scientific information)
	Basnyat & Lee (2014)	외부에서 유입된 질병 (Imported disease) 전쟁 / 은유 (War / battle metaphors)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제재 정책 (Lockdown policies)
	Krishnatray & Gadekar (2014)	책임귀인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 (Human interest) 행동 (Action) 공포 및 패닉 (Fear and panic)
	Pan & Meng (2016)	건강위험 (Health risk) 의학/ 과학적 이슈 (Medical / Scientific issues) 경제적 결과 (Economic consequences) 사회적 문제 (Societal problems) 예방 및 교육 (Prevention/ education) 정치적/ 법률적 이슈 (Political/ legal issues)
에볼라 (Ebola)	송해룡 & 조항민 (2015)	책임귀인 인간적 흥미 갈등 의학 예방 위험 사회 상업적 정책
메르스 (MERS)	Lee & Paik (2016)	책임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 (Human interest) 경제적 결과 (Economic consequences) 안심 (reassurance) 심각성/불확실성 (Severity/uncertainty) 갈등 (Conflict) 새로운 근거 (New evidence) 통계적 자료 (Statistical data)

3) 진단(diagnostic), 예후(prognostic), 동기(motivational) 프레임

프레임 연구의 사회동원론적 관점은 개인이나 조직의 이념과 행동을 조직하고 설득해 사회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사회운동의 목표와 이념에 부합시키거나 상호보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프레임 정렬(framing alignment)' 에 도달하는 것이다(Snow et al., 1986). 프레임 정렬은 개인의 프레임이 사회운동집단의 프레임과 일치하거나 상호교류 하는 것으로 이념적 가치, 규범 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Snow et al., 1986).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구축하는 전략은 '집합 행위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 으로 정의되는데 사회운동을 정당화하고, 집합적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된다(Benford & Snow, 2000). 집합행위 프레임은 행동지향적인 집합행위와 프레임 정렬이라는 목적을 위해 대중적 이해와 지지, 협조,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감염성 질환 보도의 실천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집합행위 프레임은 진단 프레임(diagnostic frames), 예후 프레임(prognostic frames), 동기 프레임(motivational frames) 세 개 차원으로 구분된다. 진단 프레임은 현재의 문제를 규명, 정의하고 문제 원인의 책임자와 소재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고, 예후 프레임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거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Snow & Benford, 1988).

주영기 & 유명순(2011)은 기존의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결과에 있어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종플루 보도에 진단/예후 프레임을 적용해 분석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진단/예후 프레임의 적용이 사회·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감염성 질환 발생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사회 운동과 신종 감염성 질환의 확산은 모두 발생한 문제를 정의하고 규명해 궁극적으로는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 연구는 연구자들 스스로도 문제 제기한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하여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회운동은 물론 감염성 질환 극복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대중의 '참여' 와 '협조' 라는 점을 고려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동기 프레임을 분석 유목으로 활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동기 프레임은 집단적 행동 참여에 관한 논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잠재적 참여자나 지지자들을 행동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now & Benford,

1988). 동기 프레임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을 포괄한다(Snow & Benford, 1988). 특히 진단 프레임에서 관찰되고 예후 프레임에서 제안된 문제에 대한 해결의 구현에 관여한다. 이것은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며, 때로는 가치 및 비전과 같은 해결책 제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동기 프레임은 '행위의 동원(action mobilization)' 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진단・처방 프레임은 '합의의 동원(consensus mobilization)' 을 지향한다(Snow & Benford, 1988).

실증 연구에서 동기 프레임은 건강 행위의 의도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와 같은 공중보건 캠페인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관찰되었다(Gifford& Comeau, 2011). 특히 대중의 손해나 희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효과적인 대안과 이러한 대안의 적절성, 효율성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참여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Baum et al., 2009). Baum 외(2009)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감염성 질환 발생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제재되는 개인의 윤리 문제와 한정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동기프레임과 같은 설득의 기제가 대중의 공중보건명령 준수 의도를 상승시키며 공공숙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동기 프레임은 종종 공공숙의 과정(public deliberation process)에서 행위자가 선택하는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Pan & Koisicki, 1993). 특히 동기 프레임의 등장이 기존의 사회운동이 변화를 추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과도한 불만 표출에 그치면서 실패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장한 만큼, 집합 행위를 구성하는 세 가지 프레임의 균형적 활용과 프레임 정렬은 감염성 질환 보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예견한다 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집합행위 프레임을 적용할 때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점은 프레임 활용의 전략이다. 사회학 분야의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운동 프레이밍과 연관된 전략 과정에 집중해 왔다. 이 과정은 실질적이며 목표지향적인 프레임 전략을 구사할 때 대중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어 사회운동이 성공한다고 설명한다. 사회운동에서 설명되는 전략과정은 ①프레임 연결과정(frame bridging) ②프레임 증폭과정(frame amplification) ③프레임 확장과정(frame extension) ④ 프레임 변환과정(frame transformation)으로 구분된다(Snow & Benford, 1988; Snow et al., 1986).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단계인 '프레임연결과정' 은 관찰된 하나의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프레임이 존재하는 경우로 이 두 프레임을 동일한 하나의 이념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주로 진단 프레임을 내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인

‘프레임 증폭과정’은 주장하거나 목표로 삼는 신념과 가치를 정교화 하는 것으로, 프레임 연결과정에 대한 2차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예후 프레임을 통해 목표와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운동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세 번째 단계인 ‘프레임 확장과정’은 잠재적 지지층을 동원하기 위해 주장하는 신념과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다. 예후와 동기 프레임이 적절히 나타남으로써 문제의 목적과 해결을 구체화 한다. 마지막 단계인 ‘프레임 변환과정’은 표방하는 신념과 가치에 대해 변환된 프레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에 관한 것이다. 동기프레임을 활용함으로써 대중을 설득하고 참여로 유도하며 새로 제시하는 가치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다(Snow & Benford, 1988; Snow et al., 1986).

본 연구는 집합행위 프레임이 추구하는 지향성과 전략적 목적성, 프레임 활용 전략의 합리성에 주목하여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집합행위 프레임의 세 개 차원(진단/예후/동기)을 보도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그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 대중과 사회의 참여와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4) 시각적 정보(visual information) 프레임

일간지 지면의 구성은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로 나눠 볼 수 있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의 영역에서 시각적 정보(visual information)는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사진과 그래픽을 포함한다(Coleman, 2000). 보도사진은 사건 대상에 대해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말하며 그래픽은 데이터나 개념, 개요 등을 그래프, 표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Messaris & Abraham, 2001). 주로 기사의 정보 전달을 돕기 위해 텍스트와 연동해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텍스트 기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유흥식, 2007). 특히 보도사진과 같은 시각적 정보는 신문 지면을 통해 매개되는 정보 가운데 수용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요소로 건강 행동에서 수용자의 주의력과 회상,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며 설득을 극대화하기도 한다(Messaris & Abraham, 2001; Houts et al., 2006).

시각적 정보의 사용에 관한 영향은 위험인식 분야의 연구에서 수용자의 이슈지각과 상호작용한다는 결과들을 축적하고 있다. 연구들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시각적 정보는 대중의 인식, 특히 위험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각적 정보가 포함된 기사에 노출된 개인은 텍스트에 노출된 개인에 비해 위험을 높게 평가했다(Gibson & Zaillmann, 2000). 개인의 위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광욕과 피부암을 다루는 방송뉴스에서 과도한 일광욕 때문에 피부암에 걸린 여성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제시한 보도는 수용자 본인과 타인들의 위험 평가를 높이기도 한다(Zillmann & Gan, 1996). 이는 시각적 정보가 있을 때 수용자는 정신적으로 사건에 더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Collins et al., 1988).

둘째, 수용자는 사진 및 시각적 정보를 상황을 이해하는 '근거(evidence)' 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행동을 변화시킨다(Bundesen & Habekost, 2008). 이슈를 인지하는 것은 예방 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변수로 관찰되는데 보도를 통해 인지된 유방암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은 유방암 검진 행위의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기도 한다(홍양선 & 유우현, 2015). 특히 시각적 정보는 개인과 행동을 매개하는데 있어 텍스트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최소한의 정보 처리 또는 사고로 의사 결정을 유도한다(Dillard & Meijinders, 2002).

셋째, 예방에 있어 중요한 정보전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신종플루 예방에 대한 수용자의 정보추구 행위에 관한 실험연구에서 시각적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종플루에 대한 감수성과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했으

며 더 많은 정보추구 의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태 & 김규찬, 2010). 신종플루 확산에 관한 그래프나 표는 위험의 규모, 상대적 위험, 누적 위험 불확실성 및 상호작용과 같이 무형으로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 경험 사례를 제공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다(Lipkus & Hollands, 1999). 연구에 따르면 표나 그래프가 제공하는 수치적 정보는 텍스트로 표현될 때 보다 명료성, 중요성, 복잡성의 영역에서 수용자의 인지 및 이해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Johnson & Slovic, 1995). Wong 외(2013)의 연구도 신종플루의 보도사진이 수용자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 정보 탐색 의도를 조사했는데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을 보도사진으로 접한 사람들은 텍스트로 인지한 사람들보다 심각성을 더 높게 평가하며 추가 정보 탐색 의도를 높였다. 나아가 시각적 정보가 제공된 텍스트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험 인식과 예방 행동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Zillmann, 2006; Zillmann & Brosius, 2000).

따라서 프레임을 연구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시각적 정보와 텍스트 프레임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Messaris & Abraham(2001)은 프레임 연구에서 시각적 차원과 텍스트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경우 수용자의 인지에 작용하는 기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Messaris & Abraham, 2001). 나아가 Graber(1990)와 Newhagen(1998)은 시각적 정보 프레임은 정보의 지속성 측면에 있어 텍스트보다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Zillmann 외(1999)의 연구자는 기사에서 다뤄지는 이슈에 대해 수용자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비교한 결과 한쪽 측면만을 강조한 보도사진을 본 수용자가 그렇지 않은 수용자에 비해 편향된 지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향적 지각현상은 2주 후까지 지속되면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상 능력의 향상(enhanced recall)은 개인에게 현저한 인식으로 존재하게 되며, 이는 공공 의제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Fahmy et al., 2006).

위의 논의들은 감염성 질환 보도에 대해 시각적 정보의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지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는 시각적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가 목표로 하는, 혹은 목표로 요구 받는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함의를 제공한다.

다. 위험 보도 단계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앞에서도 논의되었듯이 감염성 질환이 사회의 다양한 요소와 결합해 여러 가지 파형으로 구성되며 확산한다는 것이다(Mummert et al., 2013). 따라서 감염성 질환의 관리는 상황에 맞는 대응 중심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질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WHO, 2013). WHO는 대유행 인플루엔자 위험 관리(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WHO, 2013)지침에서 감염성 질환의 진행 단계를 소강(Interpandemic), 경계(Alert), 대유행(Pandemic), 이행(Transition)의 4개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대응을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은 하나의 큰 이벤트로 볼 것이 아니라 유행 양상에 따라 물리적 방역 및 정책, 치료 옵션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Vaughan & Tinker, 2009; Blendon et al., 2008). 감염성 질환의 물리적 대응이 질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사회적 대응을 다루는 커뮤니케이션의 전략도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감염성 질환 발생 초기와 같이 정보가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사망자가 실시간 발생하는 시간대의 정보제공은 감염성 질환이 수습되어 종식되는 시간대의 정보와 달라야 한다. 따라서 미국 CDC는 감염성 질환 대응의 정보제공을 행위(activity)가 아니라, 감염성 질환 사태의 시간대(timeline)별로 다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CDC, 2011).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감염성 질환을 하나의 사회적 이벤트로 보고 감염성 질환이 유행한 기간 전체에 대한 보도 경향이나 특성을 파악해 왔다. 감염성 질환의 진행 단계를 고려한 일부 연구들도 발생 초기의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어 발생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정보제공에 관한 논의는 다소 제한적이다.

다만 그동안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결과는 비교적 명확하다. 감염성 질환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제공된 적절한 메시지는 위험 발생에 대해 경고하고 정보의 공백을 메워주며 질병 극복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효용'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Freimuth et al., 2014; Bauch, 2012; Mummert & Weiss, 2013). '사회적 효용' 은 갑작스러운 건강 위기의 상황에서 대중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성 질환 전파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질병 발생 초기의 언론 보도는 감염성 질환 발생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ummert & Weiss, 2013; Hallahan et al., 2007). 특히 감염성 질환 발생 초기에 제시된 적절한 정보는 대중에게 감염 전파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지시와 행동 변화 유도, 지역사회 협력 확보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불필요한 불안감, 공포심과 같은 회피 감정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된다(Mummert &

Weiss, 2013).

조류독감 유행 상황에 대한 보도의 중재 역할에 대해 연구한 Ungar(2008)에 의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언론은 대유행으로 인한 인구집단의 감염과 사망을 알리는 경고(alarm) 중심 메시지를 주로 보도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백신 공급을 포함한 과학적 해결과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는 안심 정보를 제공했고 대유행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계에는 질병 극복과 새로운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는 확신 위주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불확실성이 만연한 위기의 상황에서 언론이 공중이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을 집중 보도하면서 패닉으로 가는 상황을 중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즉 언론이 대중의 불안 상황에 대해 보도의 내용 구성을 달리하면서 안심과 확신을 줬던 것이다.

위기의 단계와 대응은 주로 PR(Public Relations) 분야에서 위기관리를 둘러싼 역학관계, 준비과정, 실제 수행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위기의 대응 단계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는 Fink(1986)가 제안한 4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과 같은 위기 사후관리 단계들이 첨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김영욱, 2008). Fink(1986)는 위기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위기관리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전략이 제시되는데 Fink(1986)가 제시한 위기 단계는 징후(prodromal or build up stage), '발생(acute or break out) stage)', '만성적(chronic or abatement stage)', '종결(termination stage)' 이다(Fink, 1986; Mitroff, 1988). Fink는 '징후' 단계를 강조했는데 이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자가 적절하게 행동한다면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단 '발생' 의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경우 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을 최소화 하는데 효용이 있을 수 있다. '처리' 단계에서는 위기의 해소에 대한 조직 및 책임자의 자기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위기가 만성적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해결' 의 단계에서는 또 다른 위기 예방을 위한 계획과 준비를 도모한다.

Sturges(1994)는 효과적인 위기관리 측면에서 위기 단계를 나누고 단계에 따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urges(1994)의 위기관리 단계는 위기 점증(crisis buildup), 위기 고조(crisis breakout), 위기 소강(abatement), 위기 종료(termination)로 Fink(1986)와 유사하다. 그리고 위기 단계별로 정보 전달의 유형을 나눠 적합한 위기관리 전략을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정보 전달 유형은 정보전달형(instructing), 조정형(adjusting), 내재화형(internalizing)이다. 정보전달형은 위기 상황에서 대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알려주는 것이고 조정형은 대중의 심리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재화형은 대중이 위기에

갖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는 위기 징후 단계에서는 내재화형, 발생단계에서는 정보전달형, 감소단계에서는 조정형과 내재화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Sturges, 1994).

이처럼 위기 단계에 대한 다양한 모델과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제시되는 것은 곧 위기의 전개 양상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기 보도의 단계를 나누고 보도를 관찰해 보는 시도는 대중을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니라 참여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보도 전략 도출을 제안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프레임 연구의 사회동원론적 접근으로 집합행위 프레임의 세 차원(진단/예후/동기)을 보도의 내용 분석 유목으로 삼아 분석을 시도한다. 공중보건위기에 대처하는 언론 보도의 실천적 대안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했다.

연구문제 1: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1면 보도는 진단, 예후, 동기로 구성한 프레임 유목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경향을 보일 것인가?

본 연구는 의제설정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발행부수 상위 10개의 국내 일간지 1면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신문 1면이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의 조합(combination)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시각적 정보를 프레임 분석에 포함했다. 이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에서의 언론보도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한 시도로 시각적 정보의 기여를 포착하고자 했다.

연구문제 1-1: 그 차이는 보도 내용 구성 포맷(텍스트/시각적 정보) 별로 차이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위기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보도 프레임이 변화를 하는가를 탐색한다. 감염성 질환과 같이 사안이 시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변화하며 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질병의 경우 언론에 노출되는 정보에 따라 수용자의 위험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위기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대중의 행동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론보도의 단계별 프레임이 달라지는 가를 보는 것은 대중의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정보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연구문제 2-2: 그 차이는 감염성질환 위기 단계별로 차이가 있을 것인가?

4. 연구방법

가. 분석 대상 및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해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를 관찰하고자 한다. 내용 분석은 분석대상 자료로부터 반복적이고 타당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기법으로 보도 텍스트를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으로 변인으로 측정하는 방법(Kolbe & Burnett, 1991)이다. 둘 이상의 코더가 내용 분석에 참여하며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코딩 가이드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한 후 코더간의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도출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한다(Wimmer & Dominick, 2011).

분석 대상은 각각 2009년과 2015년 한국에서 유행한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다. 두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언론 보도의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보도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보도에의 적용 및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의 유형화 작업을 염두해 둔 것이다. 기사 수집은 기존의 프레임 연구가 신문 전체 지면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1면 기사로 한정했다. 신문 1면은 뉴스 가치가 가장 높은 기사들이 게재되는 면 이며 수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지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쇄매체에서 1면은 제한된 공간에 지면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약으로 인해 중요도와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다른 어떤 페이지보다 중요하게 평가되며 이슈의 대표성을 갖는 주요 지표로 여겨진다(Danielson & Lasorsa, 1997). 이는 프레이밍 이론에서 정의되는 선택(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로, 프레임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Blood & Philips, 1997; Danielson et al., 1997; Erbring et al., 1980).

분석 대상 매체는 2017년 한국 ABC협회[4]의 전국대상 종합일간지 중 발행부수 상위10개 일간지로 발생부수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1,513,073부), 중앙일보(978,798부), 동아일보(946,765부), 한겨레(239,431부), 한국일보(213,278부), 경향신문(196,174부), 국민일보(185,787부), 문화일보(177,887부), 서울신문(164,446부), 세계일보(101,269부).

기사 수집 기간은 신종플루의 경우 한국에서 최초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2009년

4) 한국 ABC협회는 광고거래의 합리화를 위해 신문, 잡지, 멀티미디어 등 광고매체의 수용자 크기와 분포 상황 등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한다. 전국대상종합일간지의 발행부수는 등록 매체에 대해 년 단위로 집계한다.

5월 1일부터 국가 재난 단계가 '관심' 으로 하향조정 된 하루 뒤인 2010년 4월 2일까지 총 368일로 정부의 공식 종료가 없어 언론이 '실질적인 종식' 이라는 표현을 쓴 날을 기준으로 했다. 메르스의 경우 한국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2015년 5월 20일부터 정부가 상황을 공식 종료한 하루 뒤인 2015년 12월 24까지 총 219일 이다. 전날 소식이 다음 날 게재되는 신문 제작의 특성상 종료일 하루 뒤까지로 수집기한을 정했다.

1면 수집은 국내 일간지 지면을 PDF형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아이서퍼 4.0(Eyesurfer)[5)]' 를 이용해 신종플루와 메르스의 각 분석기간에 해당하는 매일자 신문 1면을 모두 수집했다. 수집된 1면을 대상으로 신종 감염성 질환 관련 기사를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 중 80% 이상이 질병과 관련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그 결과 신종플루 관련 보도 1면은 320건이 수집되었고 이 중 텍스트 기사 317건, 시각적 정보 기사 91건이 분류되었으며, 메르스 관련 보도 1면은 288건이 수집되었고 텍스트 기사 389건, 시각적 정보 기사 293건이 분류되었다.

5) '아이서퍼4.0(Eyesurfer)는 미디어 빅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기반으로 뉴스 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빅데이터 전문 회사 비플라이소프트의 프로그램으로 신문지면을 PDF 형태로 제공한다.

나. 언론 보도 프레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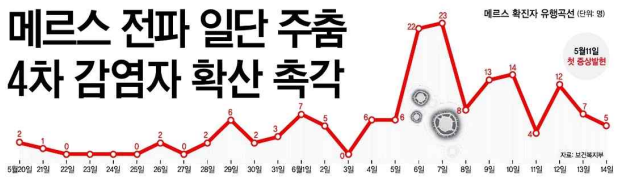
프레임 분석은 연역적(deductive) 방법과 귀납적(inductive)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연역적 방법은 선행 연구의 프레임 유목에 따라 기사의 프레임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귀납적 방법은 보도가 내포하는 발생 가능한 프레임들을 모두 도출해내는 방식이다(Semetko & Valkenburg, 2000). 본 연구는 앞에서도 언급됐듯,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에 대해 집합행위프레임을 적용해 분석하는 것으로 프레임 분석의 연역적 방법을 취한다. 즉 프레임 유목을 내용 분석 변인으로 정의한 후 보도를 통해 프레임 변인이 어떠한 빈도, 경향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한다. 연역적 접근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프레임을 후속 연구에도 반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Iyengar, 1991).

코딩에 앞서 각 프레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코딩 가이드를 만들었다[표2]. 코딩 가이드에는 각 프레임의 분별을 위한 질문도구가 포함된다. 이 질문도구의 진단, 예후 프레임을 정리하는데 있어 주영기&유명순(2011)과 유명순 외(2017)의 연구를 참고했다. 주영기&유명순(2011)은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를 감염 피해 확인 중심의 '진단' 과 개인과 사회의 대처 방안에 중점을 두는 '예후' 프레임으로 나눠 분석 한바 있다. 이들은 연구에서 진단 프레임은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피해와 증상에 초점을 두는 것, 예후 프레임은 감염성 질환 대처의 개인수칙과 정부관계기관들의 대책 등 공중보건 차원의 접근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한국 언론의 기후변화보도를 진단/예후 프레임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진단/예후 각 프레임 별로 5개의 측정 진술문을 개발해 정리했다(유명순 et al., 2017). 본 연구는 이들이 신종플루 보도에 적용했던 '진단', '예후' 프레임의 정의와 기후변화 보도를 통해 개발한 '진단', '예후' 프레임의 10개의 진술문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일부 단어를 변경해 차용했다.

동기 프레임은 Snow & Benford(1988)의 연구와 Lubitow(2013)의 연구를 참고했다. Snow & Benford(1988)는 동기 프레임에 대해 '문제 해결의 잠재적 참여자나 지지자들을 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내포하며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을 포괄한다' 고 정의했다. Lubitow(2013)의 연구는 건강문제의 제재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동기 프레임을 공동체적 대응의 필요성과 행동적 합리성을 제시하는 경우와 정책변화와 그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 하는 경우로 제안했다(Lubitow, 2013). 이러한 요소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단어를 변경해 차용했다.

[표 2]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 분석을 위한 질문 도구 및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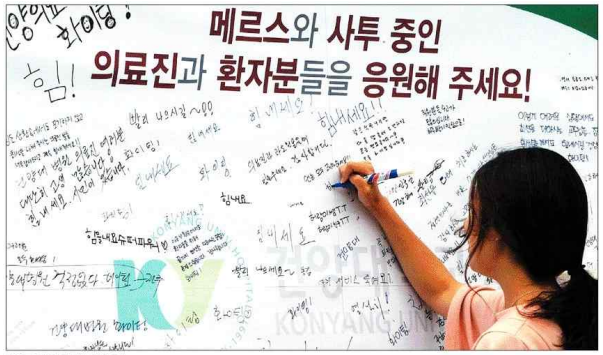
프레임		번호	질문 도구	예시
텍스트	진단 (Diagnostic)	S1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현황/정도를 다루고 있는가?	신종플루 사망자 4명으로 늘어 (경향신문, 2009.09.03.)
		S2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다루고 있는가?	메르스 환자 절반이 응급실서 옮았다 (조선일보, 2015.06.20.)
		S3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원인 제공자를 지목하는가?	서울시 “메르스 의사, 시민 1500여명과 접촉” (서울신문, 2015.06.05.)
		S4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영향을 다루고 있는가?	‘신종플루 휴교’ 대학으로 확산 (중앙일보, 2009.08.25.)
	예후 (Prognostic)	S5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언급하는가?	메르스 고위험군 40여명 시설 격리 (세계일보, 2015.06.01.)
		S6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개인적 대응방안을 언급하는가?	손 자주 씻고 공공장소에선 마스크 고령자·만성질환자는 외출 자제를 (조선일보, 2015.06.06.)
		S7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책임자/집행인을 명시하는가?	황교안 총리 인준안 통과 ... “내가 메르스 컨트롤 타워” (경향신문, 2015.06.19.)
		S8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책임자의 가능성/능력을 제시하는가?	메르스 15일 지나서야 ... 첫 회의 연 대통령 (경향신문, 2015.06.04)

	동기 (Motivational)	S9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문제 해결에서 공중 혹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조명하거나 유도하는가?	77세 천식 할머니도 메르스 이겼다 온 국민 나서면 '戰爭' 이길 수 있다 (조선일보. 2015.06.10.)
		S10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가?	"메르스 이겼다" 얼싸안은 마을 (한국일보, 2015.16.20.)
		S11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공동체적 행동대응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조명하거나 제시하는가?	격리조치 불응 땐 경찰 강제력 동원 (세계일보, 2015.06.06.)
		S12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행동)변화와 그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는가?	메르스 교훈 ... "보건복지부서 보건 독립시키자" (중앙일보, 2015.06.29.)
시각적 정보	진단 (Diagnostic)	S13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현황/정도를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로 제시하는가?	 (세계일보, 2015.06.16.)
		S14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로 제시하는가?	해당 사항 없음

S15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원인 제공자를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로 제시하는가?	 **비상걸린 삼성서울병원… 곤혹스러운 정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에서 병원 직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근무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17명) 등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거쳐 간 병원 2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왼쪽)이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당혹스러운 듯 이마를 긁적이고 있다(오른쪽 사진). 김미옥 salll@donga.com·세종=양회성 기자 비상걸린 삼성서울병원 … 곤혹스러운 정부 (동아일보, 2015.06.08.)
S16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영향을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로 제시하는가?	 **"임시휴교 합니다"**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가 이날부터 임시휴교에 들어간 가운데 정문이 굳게 잠겨 있다. 곽성호기자 tray92@ "임시휴교 합니다" (문화일보, 2009.08.24.)

	S17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로 제시하는가?	 **중앙 정부·지자체 힘 합쳤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총력 대응 협조를 위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지방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교환키로 했다.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문 장관, 권선택 대전시장, 남경필 경기지사.(기사 8면) 세종=곽경근 선임기자 중앙 정부·지자체 힘 합쳤다 (국민일보, 2015.06.08.)
예후 (Prognostic)	S18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개인적 대응방안을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로 제시하는가?	 메르스 에티켓 (조선일보, 2015.06.05.)
	S19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책임자/집행인을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로 제시하는가?	 **여객기 긴급 방역** 메르스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방역 직원들이 4일 인천 영종도의 자사 격납고에 입고된 항공기 격실에서 메르스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용된 소독제는 미국 환경청(US EPA)에 등재된 MCT125로 메르스의 원인균인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 약품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여객기 긴급 방역 (서울신문, 2015.06.05.)
	S20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책임자의 가능성/능력을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로 제시하는가?	 메르스 전사 조준성 "두렵지 않다" 20일째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조준성 호흡기센터장이 9일 방호복을 입고 격리병실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중동에서 널리 퍼진 메르스가 언젠가는 한국에 올 것이라 생각했다. 2012년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어 메르스 치료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최전선'에서 최초 환자를 포함해 세븐의 인권호흡기를 단 환자 열명 치키고 있다. 박종근 기자 메르스 전사 조준성 "두렵지 않다" (중앙일보, 2015.06.10.)
동기 (Motivational)	S21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문제 해결에서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를 통해 공중 혹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조명하거나 유도하는가?	 "격리자에게 구호품을"… 또 다른 '메르스 戰士' 자원봉사자들 16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적십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메르스 감염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 격리된 부산지역 거주자들에게 보낼 쌀과 라면 등의 응급구호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보건당국 못지않게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다"며 "메르스가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보건당국의 비효율적 대응이지만 감염병에 대한 부족한 시민의식도 한 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부산=서영수 기자 kukiRdonga.com "격리자에게 구호품을"… 또 다른 '메르스 戰士' 자원봉사자들 (동아일보, 2015.06.17.)

S22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를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에 포함하는가?	 "의료진·환자 힘내세요" 메르스와의 전쟁 최일선에는 의료진이 있다. 고통을 견뎌내는 환자들도 있다. 대전 건양대의 한 여학생이 11일 건양대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보낼 응원 메시지를 적고 있다. 대형 패널에 '포기하지 말자' '힘내세요' '파이팅' 등의 글귀가 가득하다. 연합뉴스 "의료진 · 환자 힘내세요" (국민일보, 2015.06.12.)
S23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공동체적 행동대응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를 통해 조명하거나 제시하는가?	**'메르스 머슴' 자청한 옥천군 160명**  17일 옥천군청 공무원들이 라면과 생수 위에 사진 등을 대문 앞에 내려놓고 10m쯤 물러나 전화기를 까내 들었다. 연락을 받고 나온 70대 메르스 자가격리자에 사전 기온체크는 손을 흔들어 고마움을 전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중앙일보, 2015.06.18.)
S24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행동)변화와 그에 대한 중요성을 시각적 정보(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로 제시하는가?	해당 사항 없음

다. 언론 보도 단계 구분

연구문제 1-2는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1면 보도 프레임이 위기 단계별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기의 역동성을 전제로 위기 단계를 구분하고 대응을 논의한 Fink(1986)의 연구를 참고했다. Fink(1986)의 위기 단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위기 점증(buildup), 위기 고조(breakout), 위기 소강(abatement), 위기 종료(termination). 위기 점증은 위기 발생의 단서나 전조 등이 나타나는 시기로 위기의 확인과 예방, 준비 등을 위한 경고의 단계다. 위기 고조는 실제 위기가 전개되는 시기로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단계다. 위시 소강은 위기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복구와 사후 노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다. 위기 종료는 위기의 명확한 종결의 단계다(Fink, 1986).

보도 진행단계 구분에 따른 기간 설정은 국내 메르스 보도를 내용 분석한 You 외(2017)의 연구와 영국 신문의 신종플루 보도 프레임을 내용 분석한 Hilton &Hunt(2010)의 연구를 참고했다. 위기 점증은 신종플루와 메르스의 국내 첫 감염 확진 환자가 발생한 날짜 하루 뒤부터 위기고조단계가 시작하는 날짜의 하루 전 이다. 위기 고조는 감염성 질환으로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짜부터 위기 소강 전 날까지다. 위기 소강은 신종플루의 경우 전국 750만 초중고 대상 예방접종 조기 실시된 날부터 다음 단계 구분이 시작되는 전 날까지로 했는데 이는 메르스의 위기소강 단계 구분이 치료환자의 감소가 시작된 날부터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날 하루 전 까지 이다. 위기종료는 신종플루의 경우 국가 재난단계[6]를 기존의 '경계(Orange)' 에서 '관심(Blue)' 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언론이 '실질적 종식' 이라는 단어 사용한 날 까지다. 메르스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없었던 날부터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한 다음날까지로 했다[표3].

6) 한국의 국가재난단계구분은 총 4개로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이다. 주관기관(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관심(Blue)' 은 해외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국내에서 원인 불명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이며, '주의(Yellow)' 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된 경우다. '경계(Orange)' 는 해외 혹은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한 경우다. '심각(Red)' 은 해외 혹은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징후가 있는 경우다(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4).

[표 3]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단계 구분

위기 단계 구분	신종플루	메르스
위기점증 (Build up)	2009.5.1. ~ 2009.8.14. 국내 신종플루 감염 첫 확진~	2015.5.20. ~ 2015.6.1 국내 메르스 감염 첫 확진 ~
위기고조 (Break out)	2009.8.15. ~ 2009.11.11. 신종플루 관련 첫 사망 ~	2015.6.2. ~ 2015.6.16. 메르스 의심 환자 첫 사망 ~
위기소강 (Abatement)	2009.11.12. ~ 2009.12.10. 전국 750만 초중고 대상 예방접종 조기 실시~	2015.6.17. ~ 2015.7.4. 치료 환자 감소 시작 ~
위기종료 (Termination)	2009.12.11. ~ 2010.4.2. 국가재난단계를 '경계' 에서 '관심' 로 하향조정 (언론이 '실질적 종식' 이라는 단어 사용)	2015.7.5. ~ 2015.12.24. 신규 확진자 발생 없음 ~ 메르스 종식 공식 선언

라. 언론 보도 프레임 코딩 방법

본 연구는 신문 1면이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로 구성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이 두 유형의 기사를 프레임 분석의 대상으로 했다.

프레임 코딩의 판별 요소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나 수단 또는 구성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Entman(1991)에 따르면 뉴스프레임은 뉴스 내러티브에서 강조된 키워드, 메타포, 컨셉, 심볼, 시각적 이미지 등을 통해서 형성되고 구체화된다. 내러티브는 단지 단어와 그림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프레임은 특정한 단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조사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Tankard(2001)는 뉴스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인을 구체화해서 11개로 분류했다. 헤드라인, 서브헤드, 리드, 진술 및 단평, 사진, 사진캡션, 정보원, 인용, 전체인용, 로고, 통계와 차트다. 이러한 요소들은 신문뉴스에 있어서 프레임 내에서 주어진 주제 또는 이슈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프레임 장치들의 영향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독립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유홍식(2009)은 기사제목과 예시가 수용자의 뉴스가치 평가와 이슈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연구에서 기사 헤드라인이 각각 수용자의 이슈 지각과 판단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헤드라인은 그 자체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사에 이해와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전오열(2003)은 뉴스 프레이밍이 수용자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프레이밍 기제로서의 프레임 장치가 수용자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헤드라인, 사진 등 프레이밍 장치만으로 수용자들의 태도변화가 일어날 수 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신문 1면을 대상으로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를 대상으로 프레임을 도출하며 두 유형의 정보제공 방법이 다른 만큼 코딩을 다르게 한다. 기사 유형에 따른 코딩 절차와 점수 산정, 가중치 부여 방식, 예시는 다음과 같다.

텍스트 프레임

프레임 분석 단위는 개별 기사로 코딩 가이드에 명시된 질문도구를 근거로 프레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 각 프레임 점수를 도출한다. 이때 개별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 하고 각 프레임 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기사 구성의 위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는 역피라미드[7]로 작성된 기사의 부분별 중요도를 고려한 것으로 텍스트 기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헤드라인, 리드 기사 본문 순으로 기사의 현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Eveland et al., 2009; 유홍식, 2009). 이러한 방법은 기사에 내포된 모든 프레임을 코딩할 수 있고, 프레임별 중요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가중치를 얼마로 둘 것인가는 연구자에 따라 주관적 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기사 구성의 중요도와 현저성을 고려해 헤드라인에 3점 리드에 2점 기사 본문에 1점을 부여했다[8]. 만약 하나의 위치에서 하나 이상의 프레임이 발견된다면 최대 3개 까지 복수코딩 했다. 따라서 헤드라인은 최소 0점에서 최대 9점, 리드는 최소 0점에서 최대 6점, 기사 본문은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이 산정될 수 있다. 헤드라인과, 리드, 기사 본문에 각각 매겨진 점수는 프레임 별로 합산한다. 즉 하나의 기사에 진단, 예후, 동기 프레임 점수가 도출된다. 예를 들면 헤드라인에 진단 프레임이 존재하고, 리드에 예후 프레임, 기사 본문에 진단과 예후 프레임이 존재하는 기사의 최종 프레임 점수는 진단프레임 4점, 예후 프레임 3점, 동기프레임 0점이다[표4].

---

7) 역미라미드형 기사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맨 앞의 리드에 제시한 뒤 본문에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중요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의 기사작성 방법이다(임영호, 2013, p.186)

8) 헤드라인과 리드는 본문을 압축해 제시하고 본문의 전개 방향을 설명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된다(Pan & Kosicki, 1993). 특히 헤드라인은 수용자의 흥미를 유발해 뉴스선택과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내용의 정확한 추측과 회상,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배영&한경석 et al., 2003; 정태철, 1995; 윤혜정, 1996; 조수선, 2005). 리드(Lead)는 기사의 첫 문장을 말하는데 전문(前文)이라고도 한다. 리드에는 기사의 흐름이나 중요도 요지 등이 집약되어 있다(임영호, 2013, p.184). 기사 본문은 기사에서 제목과 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다. 본문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리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텍스트다. 1단 짜리 기사와 같은 짧은 기사에서는 리드와 본문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임영호, 2013, p.186). 본 연구에서는 이 경우 기사본문으로 코딩했다.

[표 4]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텍스트 프레임 분석 예시

한국일보 2015.06.04.

쉬쉬하는 정부… '메르스 정보 독점' 역효과도

정보접근 어려운 국민은 무방비
정치권서도 "원칙 재검토" 주문
의료계 "지역확산 막기위해 공개를"

정부 "치료 거부 병원 나올라"
감염 지역 등 정보 비공개 고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는 등 메르스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병원 및 지역, 환자 수용 병원 등 정보를 독점한 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정부가 융통성 없이 정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 관련 정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인데도 보건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등 소외계층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2·3·4·5·6·13·19면

국민들의 불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건당국의 비공개 원칙은 정치권으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민 사이에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공기를 통한 감염이 되는 건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확인 안 된 얘기가 SNS로 급속히 번진다"며 비공개 원칙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메르스 감염 지역과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2.6%에 달했다.

보건당국의 정보 독점은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정보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최모(69)씨는 "인근 병원 원장과 주민센터 관계자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며 "발병 지역과 병원 정보를 갖고 있는 공무원, 의사들과 그 가족들은 그 지역에 가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정보가 없는 일반 국민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정보를 틀어쥐고 있지만, 정작 메르스 감염 의심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돼 버젓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날 메르스 감염 의심자 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경기 화성시의 내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최초 유포자 검거에 나섰다. 화성시보건소가 지난달 31일 작성한 A4 용지 1장 분량의 문건에는 메르스 감염 의심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주소, 감염경로 등이 적혀 있다.

메르스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A교수는 "애초에 메르스 환자가 대거 발생한 경기 평택의 병원을 공개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병원 의료진들이 해당 병원에 있었던 환자임을 확인했다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격리 및 치료 정도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보 독점과 안일한 대처 때문에 3차 감염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 비공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우주 메르스 민간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대한감염학회장)은 브리핑에서 "악조건 속에서 메르스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민간 병원의 이름이 공개되면, 해당 병원들이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28.2×26.3)cm

분석 대상	프레임 점수			코딩의 근거가 되는 내용분석 질문도구 및 근거	
	진단	예후	동기		
헤드라인 (3점)	3	0	0	질문도구	S3. 해당 기사는 감염성질환 발생 및 확산의 원인 제공자를 지목하는가?
				기사 텍스트	쉬쉬하는 정부 … '메르스 정보 독점' 역효과도
리드 (2점)	0	2	0	질문도구	S5. 해당 기사는 감염성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언급하는가?
				기사 텍스트	정치권서도 "원칙 재검토" 주문 의료계 "지역 확산 막기 위해 공개를" 정부 "치료 거부 병원 나올라" 감염 지역 등 정보 비공개 고수
기사 본문 (1점)	1	0	0	질문도구	S3. 해당 기사는 감염성질환 발생 및 확산의 원인 제공자를 지목하는가?
				기사 텍스트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병원 및 지역, 환자 수용 병원 정보를 독점한 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0	1	0	질문도구	S8. 해당 기사는 감염성질환 발생 및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책임자의 가능성/능력을 제시하는가?
				기사 텍스트	전문가들은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정부가 유용성 없이 정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점	4	3	0		

시각적 정보 기사 프레임

시각적 정보 기사 프레임 분석 대상은 개별 보도사진과 그래픽[9], 삽화, 표다(Entman, 1991; Tankard, 2001). 분석은 코딩 가이드를 근거로 기사의 시각적 정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 프레임의 존재여부(유=1, 무=0)를 판단한다. 기사의 제목과 캡션[10] 또한 프레임 판별에 포함한다. 이후 전체 지면에서 해당 기사가 차지하는 세로 단(column)[11]의 비율을 계산해 프레임 점수에 더한다. 시각적 정보 기사의 크기는 독자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Wanta, 1988)[12]. 6단짜리 신문 지문에서 5단에 걸쳐진 '예후 프레임' 보도사진의 경우, 1(프레임 점수) + 0.8(신문 전체 단에서 보도사진이 차지하는 단의 비율)이 해당 기사의 프레임 점수가 된다[표5].

9) 시각적 정보 기사에서 그래픽은 기사 내용을 보완하거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한다. 통계 수치를 정리한 도표나, 지도, 기사 내용을 그래픽으로 정리한 것이 해당된다(임영호, 2013, p. 252).

10) 보도사진의 캡션은 사진이 주는 혼동이나 모호함을 막기 위해 글로 설명을 붙이는 것이다. 캡션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따라 독자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임영호, 2013, p.215~216).

11) 신문 지면의 단(column)은 세로 분할을 의미하며 그 넓이에 따라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손석춘, 1997).

12) 신문 1면의 시각적 정보 크기를 달리해 실험 연구한 결과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수용자가 느끼는 이슈의 현저성(salience)이 달라졌다(Wanta, 1988).

[표 5]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시각적 정보 프레임 분석 예시

중앙일보, 2015.06.10.

중앙일보

날씨 18면 고객센터: 1588-3600 joongang.co.kr 제15660호 43판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메르스 전사 조준성 "두렵지 않다" 20일째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조준성 호흡기센터장이 9일 방호복을 입고 격리병실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중동에서 널리 퍼진 메르스가 언젠가는 한국에 올 것이라 생각했다. 2012년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어 메르스 치료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최전선'에서 최초 환자를 포함해 4명의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박종근 기자

메르스 운명, 이틀 뒤 결판난다

(6월 12일)

삼성서울병원 2차 유행 주춤, 하루 환자 수 23→8명

"잠복기 끝나는 금요일, 환자 크게 안 늘면 소강 국면"

임신부 첫 1차 양성 - 서울아산 등 3곳서 추가 환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자가 8명 늘어 전체 감염자가 95명이 됐다. 관찰질환을 앓던 47번 환자(68·여)가 숨져 사망자는 7명으로 불어났다. 감염자 3명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됐고, 나머지는 서울아산병원·여의도성모병원 등에서 발생했다. 93번 환자(64·여)는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15번 환자(35)를 간병하던 중국 동포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임신부가 병원 자체 검사에서 9일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 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던 여대니를 만나러 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의 신규 감염자(하루 기준)는 지난 5일 이후 가장 적다. 6일 9명, 7일 14명, 8일 23명이었다. 의료계에서는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2차 유행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 신규 감염자가 줄어든 점이 주요 근거다. 이 병원 감염자는 6~8일 5~17명에서 9일 3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35)에게 노출된 접촉자들의 최대 잠복기가 12일로 끝난다. 이전에서 서울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접촉자의 잠복기가 대략 끝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환자가 많이 생겨나지 않으면 소강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유행의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 환자는 8일부터 신규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1, 14, 16번 환자와 같은 강한 감염력을 지닌 '수퍼 전파자'도 새로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주가 지나면 삼성서울병원 감염자가 안 나올 거라는 게 방역 당국의 생각인데, 그건 그 병원 응급실에 있던 사람이 방역 레이더망 안에 다 들어가 있을 때 맞는 말이다. 불행히도 불쑥불쑥 다른 병원에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공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3차 유행이 동탄성심병원·건양대병원·대청병원 등에서 나오지 않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유언비어 엄정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총력 대응해 나간다면 메르스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유언비어와 SNS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단단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외관·군간호사를 동원하고 ▶응급실 선별진료소를 237개 병원으로 늘리며 ▶10일 전국 폐렴 입원 환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격리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안전서비스(DUR)에 명단을 띄워 병원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노건호 기자 ssshin@joongang.co.kr

» 관계기사 2, 3, 4, 5, 6, 8, 23면

오늘의 메르스	9일 현재
확진 환자	95명
사망자	7명
치료 후 퇴원	3명
격리 관찰 대상	2892명
격리 해제	607명
휴업 학교(유치원 포함)	2208곳

김종필 증언록 "임자가 날 제쳐놓고 뭘 한다며?" - 박정희, 2인자 JP 의심 »12, 13면

무라야마·고노 "담화 후퇴 안 된다" 아베에 공개 촉구

무라야마 고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91) 전 일본 총리는 아베 총리가 8월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에 대해 "무라야마 담화를 솔직하게, 확실히 명시해 국제사회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9일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78) 전 관방장관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사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93년 고노 담화의 두 주역이 함께 회견을 한 것은 처음이다. 고노 전 장관도 "지금까지의 총리 담화, 역대 내각이 계승해온 담화를 점대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명백하게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ch.younghwan@joongang.co.kr

» 관계기사 10면

캡션 : **메르스 전사 조준성 "두렵지 않다"** 20일째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조준성 호흡기센터장이 9일 방호복을 입고 격리병실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중동에서 널리 알려진 메르스가 언젠가는 한국에 올 것이라 생각했다. 201년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이어 메르스 치료가 두렵지 않다" 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최전선' 에서 최초 환자를 포함해 4명의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분석 대상	프레임 점수			코딩의 근거가 되는 내용분석 질문도구 및 근거	
	진단	예후	동기		
프레임 (1or 0)	0	1	0	질문도구 근거	S20. 해당 기사는 감염성질환 발생 및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책임자의 가능성/능력을 시각적 자료(혹은 기사의 제목이나 캡션)로 제시하는가?
				판단 근거	시각적 요소 : 발생한 질병 치료 및 해결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 제목 : 메르스 전사 조준성 "두렵지 않다" 캡션 : 그는 "(생략) ... 2012년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어 메르스 치료가 두렵지 않다" 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최전선' 에서 최초 환자를 포함해 4명의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단 비율		5/6			
총점		1.8			

마. 코딩의 신뢰도

사회과학분야 내용분석방법 표준 절차(Wimmer & Dominick, 2011)에 따라 두 명의 코더가 코딩에 참여했다. 주 연구자 이외에 다른 한명의 코더는 언론학 대학원생이다. 코딩에 앞서 두 명의 코더는 연구 목적과 이론적 고찰, 분석 유목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다.

코딩에 앞서 주 연구자가 프레임 분석을 위한 프레임 판별 근거의 질문도구를 만들어 다른 한명의 코더가 이해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체계적 무작위 표집(Systematic Random Sampling)을 통해 전체 샘플의 약 25%를 사전 코딩했다. 코더 간 신뢰도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샘플의 10%에서 최대 25%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Wimmer & Dominick, 2013). 사전코딩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질문도구를 수정, 보완했다.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을 거친 질문도구를 근거로 전체 기사에 대해 본 코딩을 실시한 뒤 두 코더 간 신뢰도를 구했다.

코더 간 신뢰도는 코헨카파(Cohen' s Kappa)[13] 신뢰도 계수를 산출해 검증했다. 코헨의 카파 계수는 -1 ~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 AIAG 매뉴얼[14]에 따르면 카파 값이 0.75 이상일 경우 적절히 합치됨을 의미한다.

사전 코딩의 코더 간 신뢰도 분석결과 분석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신뢰도 계수가 항목 간 0.82~ 0.89로 코딩 신뢰도 허용범위에 해당됐다. 이후 진행한 본 코딩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평균 0.88로 분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분석을 진행했다. 이는 상관관계 정도 해석 기준에 근거했을 때 코더 간 일치도가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해당 유목에 의한 내용분석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13) 두 관찰자 간의 측정 범주 값에 대한 일치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순합치도 지수에서 우연합치도의 확률을 빼는 방식 이다.

14)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 (AIAG) (2010). Measurement Systems Analysis Reference Manual, 4th edition. Chrysler, Ford, General Motors Supplier Quality Requirements Task Force

바. 분석

진단, 예후, 동기 중 두드러지는 프레임을 보기위해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 기사를 총괄해 진단/예후/동기 프레임을 설명변수로 하고 프레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 ANOVA)을 실시한다.

위기단계별 프레임 변화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ANOVA를 실시해 두드러진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한다. 첫 번째로 각 단계별로 진단/예후/동기 부여 프레임을 설명변수로 하고 프레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ANOVA를 실시한다. 두 번째로는 각 단계를 설명변수로 하고 개별 프레임(진단/예후/동기)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ANOVA를 실시한다. 전자는 각 프레임별 양적 차이의 변화가 각 위기 단계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개별 프레임의 현저성(salience)이 각 위기단계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5. 연구 결과

가. 감염성 질환 보도 1면 양적 특징

1)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 지면 수

한국의 신종플루와 메르스 유행 기간에서 해당 감염성 질환 관련 기사를 포함한 1면을 수집한 결과 신종플루의 경우 총 320개의 페이지, 메르스의 경우 총 288개의 페이지가 확인되었다. 수집된 1면을 위기단계에 따라 나눠 지면 수를 본 결과 신종플루는 위기고조 단계에 과반 수 이상(61.6%) 집중되었다. 다음으로는 위기점증(26.3%), 위기소강(7.8%), 위기종료(4.3%) 순 이었다.

메르스 또한 위기고조 단계에 1면의 수가 집중되었는데 43.4%로 과반을 넘지 않는 정도였으며 위기소강(32.3%)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신종플루 보도에서 위기소강 다음으로 위기점증 에서 지면수가 많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표6].

[표 6]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위기 단계 구분에 따른 1면 지면 수

		신종플루		메르스	
		1면 페이지 수 (전체 %)	날짜 수 (전체 %)	1면 페이지 수 (전체 %)	날짜 수 (전체 %)
위기 단계 구분	위기점증 (Build up)	84 (26.3)	106 (28.8)	28 (9.7)	13 (5.9)
	위기고조 (Break out)	197 (61.6)	120 (32.6)	125 (43.4)	15 (6.8)
	위기소강 (Abatement)	25 (7.8)	29 (7.9)	93 (32.3)	18 (8.2)
	위기종료 (Termination)	14 (4.3)	113 (30.7)	42 (14.6)	173 (79.0)
	전체	320 (100)	368(100)	288 (100)	219 (100)

2)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 구성 방식

신종플루와 메르스 관련 보도 1면의 구성 방식을 오직 텍스트로만 구성된 경우, 오직 시각적 정보로만 구성된 경우,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가 혼합되어 구성된 경우로 나눴다.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구성 방식은 신종플루 관련 기사의 경우 오직 텍스트로만 구성된 경우로 신종플루 관련 전체 보도 기사 가운데 76.1%를 차지했다. 메르스 관련 기사의 경우에는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가 혼합된 방식으로 64.2%를 차지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 모두 시각적 정보 기사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각각 6.6%와 1.7%로 낮았다[표7].

[표 7]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구성 방식

		신종플루	메르스
		1면 구성 방식 전체 (%)	1면 구성 방식 전체 (%)
구성 방식	텍스트 (Only Text)	248 (77.5)	94 (32.7)
	시각적 정보 (Only Visual information)	21 (6.6)	5 (1.7)
	텍스트/ 시각적 정보 혼합 (Both Text and Visual information)	51 (15.9)	189 (65.6)
	합계	320 (100)	288 (100)

3) 신종 감염성 질환 1면 기사 량

수집된 1면 기사량을 위기 단계에 따라 나누고 비교해 본 결과 신종플루와 메르스 모두 위기고조 단계에서 가장 많은 기사 량을 보였다.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 모두 이 시기에 높은 기사량을 보였다.

텍스트 기사의 경우 신종플루 관련 보도량은 위기고조(61.2%), 위기점증(29.0%), 위기소강(7.6%), 위기종료(2.2%) 순으로 높았으며 메르스 관련 기사는 위기고조(53.7%), 위기소강(31.6%), 위기점증(7.2%), 위기종료(3.1%)순 이었다.

시각적 정보 기사는 신종플루 관련 기사의 경우 위기고조(78.0%) 시기에 기사가 가장 많고 위기점증(11.0%)과 위기소강(11.0%)이 같은 수준이다. 위기종료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메르스는 위기고조(61.8%), 위기소강(30.0%), 위기점증(5.1%), 위기종료(3.1%) 순 이었다[표8].

[표 8]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위기 단계 구분에 따른 1면 기사 량

		신종플루			메르스		
		기사 량 (전체 %)		날짜 수 (%)	기사 량 (전체 %)		날짜 수 (%)
		텍스트 (%)	시각적 정보 (%)		텍스트 (%)	시각적 정보 (%)	
위기 단계 구분	위기점증 (Build up)	92 (29.0)	10 (11.0)	106 (28.8)	28 (7.2)	15 (5.1)	13 (5.9)
	위기고조 (Break out)	194 (61.2)	71 (78.0)	120 (32.6)	209 (53.7)	181 (61.8)	15 (6.8)
	위기소강 (Abatement)	24 (7.6)	10 (11.0)	29 (7.9)	123 (31.6)	88 (30.0)	18 (8.2)
	위기종료 (Termination)	7 (2.2)	0 (0)	113 (30.7)	29 (7.5)	9 (3.1)	173 (79.0)
	전체	317 (100)	91 (100)	368 (100)	389 (100)	293 (100)	219 (100)

나. 신종 감염성질환 보도 텍스트/시각적 정보 프레임

연구문제1은 감염성 질환 보도 텍스트에서 두드러진 프레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의 기사들을 종합해 프레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진단 프레임이 가장 두드러졌고(M=4.35, SD=2.40), 예후 프레임 (M=1.52, SD=2.28)이 그 뒤를 이었다. 동기 프레임(M=0.23, SD=1.12)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2115)=769.86, p<.001].

한편 신종플루와 메르스 각각의 보도에서 프레이밍 경향이 달라지는가를 비교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 모두에서 진단 프레임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고(M=4.63, SD=2.18; M=4.11, SD=2.54), 예후 프레임(M=1.55, SD=2.24; M=1.49, SD=2.31), 동기 프레임(M=0.00, SD=0.00; M=0.42, SD=1.49)이 그 뒤를 이었다[F2, 948)=543.14, p<.001; F2, 164)=300.32, p<.001].

[표 9]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텍스트 프레임 양상

감염성질환	프레임	Mean	SD	F-value
전체	진단	4.35	2.40	769.86**
	예후	1.52	2.28	
	동기	0.23	1.12	
신종플루	진단	4.63	2.18	543.14**
	예후	1.55	2.24	
	동기	0.00	0.00	
메르스	진단	4.11	2.54	300.32**
	예후	1.49	2.31	
	동기	0.42	1.49	

** p<.01

감염성 질환 보도의 사진 그래프 등 시각적 정보에서도 텍스트와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시각적으로도 진단 (M=1.07, SD=1.04)프레임이 가장 현저했고 향후 대응 관련 사안, 즉 예후 프레임(M=0.33, SD=0.65)과 동기프레임(M=0.10, SD=0.39)은 미미했다[F2, 1149)=179.77, p<.001]. 이는 개별 감염성 질환 보도를 분리해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표 10]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시각적 정보 프레임 양상

감염성질환	Frame	Mean	SD	F-value
전체	진단	1.07	1.04	179.77**
	예후	0.33	0.65	
	동기	0.10	0.39	
신종플루	진단	0.83	0.73	46.63**
	예후	0.64	0.77	
	동기	0.00	0.00	
메르스	진단	1.15	1.11	155.91**
	예후	0.24	0.57	
	동기	0.13	0.45	

** p<.01

다. 위기 단계별 프레임 변화

연구문제 1-2는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텍스트 프레임이 위기 보도 단계별로 변화하는 가에 관한 것이다. 각 위기단계별로 개별 프레임들의 양적 차이 여부를 알아보는 ANOVA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기 단계별로 진단, 예후, 동기부여 프레임간에 양적 우위의 순서가 달라지는 않은 채 모든 시기에서 진단 프레임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표11].

다만, 각 개별 프레임들이 네 개의 위기 단계에서 어느 시기에 가장 두드러졌는가를 살펴보면, 진단프레임이 위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위기 점증 시기(M=5.25, SD=1.63)에서 가장 두드러진데 반해, 예후프레임은 위기고조 시기(M=1.82, SD=2.37)에서, 동기 프레임은 소강 시기(M=0.67, SD=1.87)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예후프레임과 동기프레임이 각각 위기 단계의 고조와 소강 시기에서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이같은 사실은 그러나,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표 11] 신종 감염성 질환보도 1면의 위기 단계별 텍스트 프레임 변화

위기 단계 구분	프레임	Mean	SD	F-value
위기점증 (Build up)	진단	5.25	1.63	542.51**
	예후	0.74	1.65	
	동기	0.00	0.00	
위기고조 (Break out)	진단	4.25	2.42	422.77**
	예후	1.82	2.37	
	동기	0.14	0.85	
위기소강 (Abatement)	진단	3.90	2.63	79.73**
	예후	1.43	2.32	
	동기	0.67	1.87	
위기종료 (Termination)	진단	4.31	2.60	37.15**
	예후	1.06	2.20	
	동기	0.33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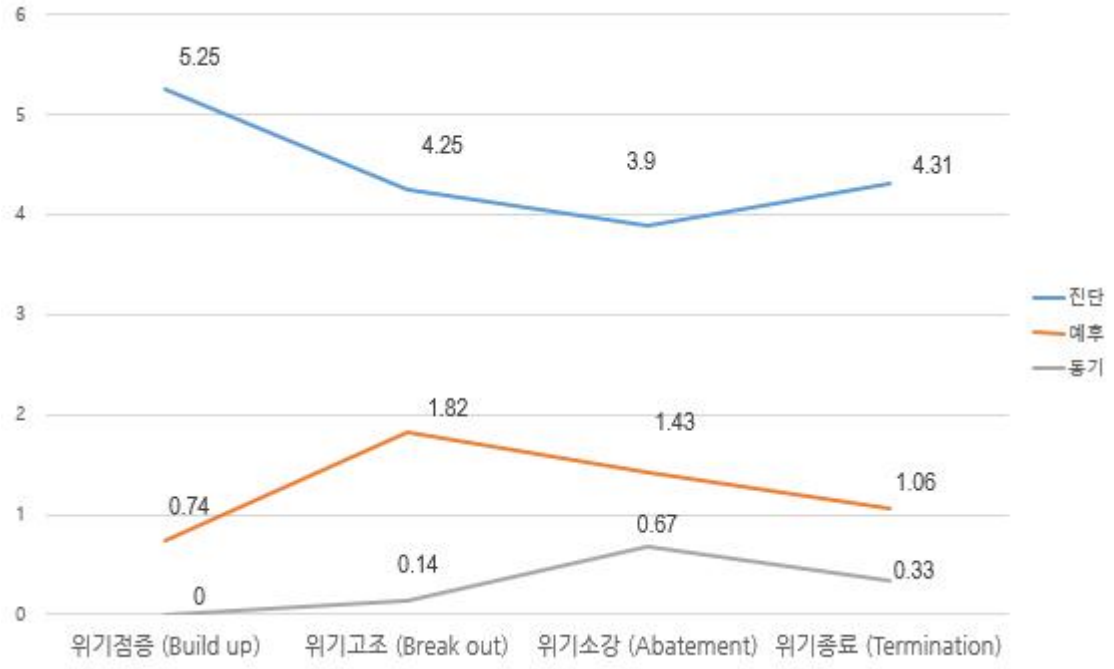
** p<.01

진단, 예후, 동기프레임이 각 위기 단계에서 실제로 다른 시기보다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 것의 통계적 유의성은 개별 프레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분산분석에서 확인되었다.

즉, 진단프레임은 위기 점증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뒤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종료 단계에서 소폭 상승의 기조를 보였고[F3, 702)=7.87, p<.001], 예후프레임은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 위기 급증 단계에서 상대적인 상승을 보인 뒤 후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3, 702)=7.83, p<.001].

건강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성원들의 위기 대응 동기를 유발하는 프레임은 위기 소강 단계에서 다른 시기보다 선명하게 포착이 되었다[F3, 702)=10.54, p<.00, 그림1].

[그림 1]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위기 단계별 텍스트 프레임 점수 변화



사진, 그래픽 등 시각적 정보의 프레임도 위기 단계별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유일한 차이는 동기프레임을 내포한 사진, 그래픽은 텍스트처럼 소강 단계가 아니라 시기가 지날수록 증가해 위기 종료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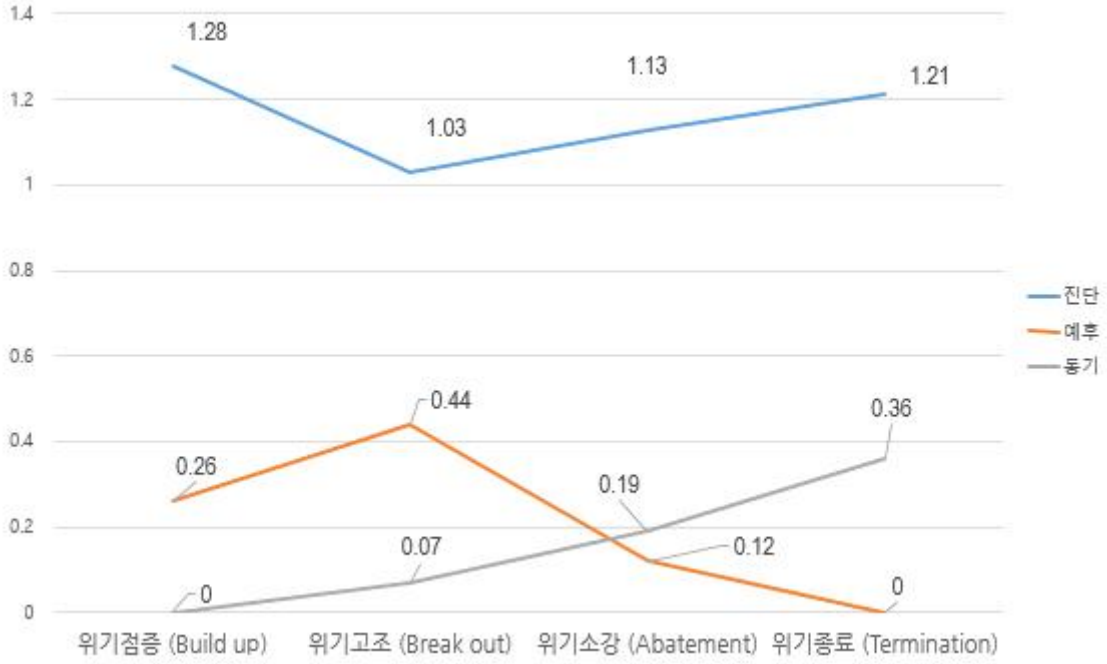
[표 12] 신종 감염성 질환보도 1면의 위기 단계별 시각적 정보 프레임 변화

위기 단계 구분	프레임	Mean	SD	F-value
위기점증 (Build up)	진단	1.28	0.59	47.95**
	예후	0.26	0.60	
	동기	0.00	0.00	
위기고조 (Break out)	진단	1.03	1.22	84.95**
	예후	0.44	0.71	
	동기	0.07	0.32	
위기소강 (Abatement)	진단	1.13	0.55	123.76**
	예후	0.12	0.42	
	동기	0.19	0.53	
위기종료 (Termination)	진단	1.21	0.70	10.55**
	예후	0.00	0.00	
	동기	0.36	0.71	

** p<.01

시각적 프레임의 위기 단계별 차이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진단프레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예후, 동기프레임은 위기단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380)=6.98, p<.001; F3, 380)=4.09, p<.01, 그림2].

[그림 2]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위기 단계별 시각적 정보 프레임 점수 변화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프레임 연구의 접근 방법 중 사회학 연구에서 논의되는 집합행위 프레임을 보건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신종 감염성 질환보도에 적용했다.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감염성 질환 보도 연구에 대안적 프레임을 제시하고 실제 활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도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집합행위 프레임의 전략으로 활용되는 진단/예후/동기 프레임이 감염성질환 보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면, 한국 언론은 신종 감염성 질환을 보도함에 있어 질병 발생 그 자체를 정의하고 보여주는 진단 프레임을 가장 현저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도 경향은 6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발생한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국 언론의 감염성 질환 보도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각적 정보에 있어서도 진단 프레임이 가장 두드러졌고 대응과 관련된 예후 프레임과 동기 프레임은 미미했다. 위기의 단계별로 프레임의 양적 차이를 봐도 진단 프레임의 우세함은 확인되었다. 이는 언론이 질병발생 초기에 진단 프레임을 활용해 새로 발생한 건강 위험 문제를 조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질병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예후나 동기 프레임이 등장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면이라는 지면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면은 신문 지면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시의성과 속보성이 높은 기사가 배치될 확률이 높다(Bridge, 1987). 두 번째는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이다. 언론은 사회의 문제와 이슈를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생명이나 자산을 위해할 요인들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감염성 질환 발생 상황에서 진단 프레임이 내포하는 현실 문제의 발견과 경고, 조명 등을 고려해보면 1면에 진단 프레임 기사가 실릴 가능성은 다른 프레임보다 높아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개별 프레임들이 각 단계에서 어느 시기에 가장 두드러졌는가를 살펴보면, 진단 프레임은 위기 점증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뒤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종료 단계에서 소폭 상승의 기조를 보였다. 예후 프레임은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 위기 급증 단계에서 상대적인 최강세를 보인 뒤 후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질병의 위험이 최고조로 이른 시기에 언론이 사회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언론이 단순히 진단 프레임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후와 동기와 같은 프레임을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건강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성원들의 위기 대응 동기를 유발하는 프레임은 위기 소강 단계에서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소강 단계에서 동기 프레임이 나타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은 사회 구성원들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응집시키고 독려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감염성 질환 발생을 포함하는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서 '무엇이 주된 프레임인가' 를 넘어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한 대안적 근거와 해석을 제시하고 관련 후속 연구를 촉진한다. 특히 진단/예후/동기 프레임을 적용·분석하는데 있어 각 프레임의 구분에 대한 질문 도구와 예시를 제시했다. 실제 보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언론은 취재 현장의 과장·쏠림 보도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보도 가이드라인으로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을 활용하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는 정부당국이 위기 시 효과적인 의미 형성(meaning making)을 위해 필요한 메시지 개발을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Boin et al., 2016).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보도의 전략 논의다. 위기 보도의 단계에 대해 본 연구는 Fink(1986)의 위기관리 모델을 적용하여 네 단계로 구분했다. 이러한 단계 구분은 사회동원론에서 논의되는 프레임 전략 과정과도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프레임 전략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에 진단 프레임, 위기 고조 단계에 예후와 동기 프레임, 위기 소강 단계에 동기 프레임이 전략적으로 사용될 때 사회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turges(1994)는 단계 별로 정보 전달의 유형이 구분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초기 단계에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형, 감소 단계에 대중의 불안을 극복하도록 돕는 조정형 및 위기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내재화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즉 두 모델은 위험 초기단계에서는 진단 프레임과 같은 정보전달, 소강 단계는 사회의 해결에 대한 이해와 참여, 위기 극복을 내포하는 예후 프레임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한다. Fink(1986) 역시 위험 초기와 해결의 단계를 강조하면서 유사한 주장을 했다. 다만, 위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의 적절한 정보 전략에 대해서는 합의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예컨대 Fink(1986)는 조직에 발생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기 단계를 구분한 만큼, 위기 단계 구분에서 위기의 고조단계를 다소 만성적 상태로 다룬다. 반면 Sturges(1994)의 경우는 위기의 최고조 단계에서는 조정형의 정보제공, 즉, 문제의 해결에 가까운 정보제공 전략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회동원론의 프레임 전략에서는 예후와 동기 프레임의 혼합을 주장했다.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 또한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위험 또는 위기의 진행 단계 별로 각각 초기에는 진단 프레임, 진행 단계와 고조 단계에는 혼합적 프레임, 위기의 소강 단계에서는 동기 프레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또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대중의 위험인식과 행위 의도 등이 측정되어 증명 되어야 할 과제다.

참고문헌

강성태. (2015). 메르스 머슴 자청한 옥천군 160명.『중앙일보』, 6월 18일, 1면.

곽경근. (2015). 중앙 정부·지자체 힘 합쳤다.『국민일보』, 6월 8일, 1면.

곽성호. (2009). “임시휴교 합니다”.『문화일보』, 8월 24일, 1면.

김미옥, 양회성. (2015). 비상걸린 삼성서울병원 … 곤혹스러운 정부.『동아일보』, 6월 8일, 1면.

김선호 & 양정애. (2015). 메르스 사태와 전염병 보도 가이드라인 제언. 미디어이슈,1권9호.

김영욱. (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김원제. (2009). 집중조명 신종플루 보도: 사망자 숫자에 초점, 불안감 조성. 신문과 방송, 12, 72-75.

김효경, & 권상희. (2011).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관련 과학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의료커뮤니케이션, 6(1), 37-53.

박종근. (2015). 메르스 전사 조준성 “두렵지 않다”.『중앙일보』, 6월 10일, 1면.

박지환. (2015). 여객기 긴급 방역.『서울신문』, 6월 5일, 1면.

백선기. (2009). 대책 없는 공포 조성에 무력감 느끼는 시청자: 방송보도 분석.

서영수. (2015). “격리자에게 구호품을” … 또 다른 ‘메르스 戰士’ 자원봉사자들.『동아일보』, 6월 17일, 1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건강한 세상을 위한 보건 상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송용희. (2005). 미디어, 프레임, 현실구성: 미디어 프레임 연구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

송해룡, & 조항민. (2015). 국내언론의 질병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1, 45-68.

연합뉴스. (2015). “의료진 · 환자 힘내세요”.『국민일보』, 6월 12일, 1면.

유명순, 윤혜정, 천진희, & 주영기. (2017). 국내 뉴스미디어의 기후변화 보도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17(3), 105-137.

유홍식. (2007). 뉴스보도에서 다양한 예시화 유형이 독자의 이슈 지각과 뉴스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6), 346-366.

유홍식. (2009). 기사제목과 예시가 수용자의 뉴스가치 평가와 이슈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3(5), 176-198.

이귀옥. (2015). 언론, 정보전달자 넘어 감시견 역할 다해야. 관훈저널, (136), 29-38.

이대혁. (2015). 쉬쉬하는 정부 ... '메르스 정보 독점' 역효과도.『한국일보』, 6월 4일, 1면.

이동훈, 김지윤, & 강현숙. (2016). 메르스 (MERS) 감염에 대해 일반대중이 경험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55-383.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 85-153.

임영호. (2013). 신문 원론. 한나래 아카데미.

전오열. (2008). 인터넷 뉴스에서 기사의 예시 제시 방식과 내용이 뉴스 소비자의 이슈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4), 427-452.

조병욱, 김민순, & 이재호. (2015). 메르스 전파 일단 주춤.『세계일보』, 6월 16일, 1면.

주영기, & 유명순. (2011).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55(5), 30-54.

한 소고.〈프로그램/텍스트〉, 13호, 125-157.

한국ABC협회. (2018). 2017 부수보고현황. http://www.kabc.or.kr/

홍양선, & 유우현. (2015). Images Say More Than Text: Effects of Pictorial Exemplification in Health News on Promoting Breast Cancer Early Detection Behavior.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3, 29-59.e disease outbreaks. Health, risk & society, 15(1), 103-114.

Basnyat, I., & Lee, S. T. (2014). Framing of Influenza A (H1N1) pandemic in a Singaporean newspaper.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30(4), 942-953.

Baum, N. M., Jacobson, P. D., & Goold, S. D. (2009). "Listen to the people" : public deliberation about social distancing measures in a pandemic.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9(11), 4-14.

Beaudoin, C. E. (2007). SARS news coverage and its determinants in China and the U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69(6), 509-524.

Benford, R. D., & Snow, D. A.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611-639.

Blendon, R. J., Koonin, L. M., Benson, J. M., Cetron, M. S., Pollard, W. E., Mitchell, E. W., ... & Herrmann, M. J. (2008). Public response to community mitigation measures for pandemic influenza.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4(5), 778.

Bloch-Elkon, Y. (2007). Studying the media,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in international crises: The United States and the Bosnian crisis, 1992—1995.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2(4), 20-51.

Blood, D. J., & Phillips, P. C. (1997). Economic headline news on the agenda: New approaches to understanding causes and effects. Communication and democracy: Exploring the intellectual frontiers in agenda-setting theory, 97-113.

Boin, A., Stern, E., & Sundelius, B. (2016). The politics of crisis management: Public leadership under press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atić, V. (2006). Media effects during violent conflict: Evaluating media contributions to peace building. Conflict & Communication, 5(1).

Braunack-Mayer, A. J., Street, J. M., Rogers, W. A., Givney, R., Moss, J. R., & Hiller, J. E. (2010). Including the public in pandemic planning: a deliberative approach. BMC public health, 10(1), 501.

Bundesen, C., & Habekost, T. (2008). Principles of visual attention: Linking mind and brain.

Catalan-Matamoros, D. (2011). The role of mass media communication in public health. In Health Management-Different Approaches and Solutions. InTech.

CDC. (2011). Public Health Preparedness Capabilities: National Standard for State and Local Planning. Division of State and Local Readiness in the Office of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OPHP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Chang, C. (2012). News coverage of health-related issues and its impacts on perceptions: Taiwan as an example. Health communication, 27(2), 111-123.

Coleman, R. (2010). Framing the pictures in our heads. In P. D' Angelo., & J.Kuypers eds.), Doing news framing analysis: Empi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pp. 233~261). NY: Routledge.
Collins, A., Ortony, A., & Clore, G. L. (1988).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
Covello, V. T., Peters, R. G., Wojtecki, J. G., & Hyde, R. C. (2001). Risk communication, the West Nile virus epidemic, and bioterrorism: responding to the communication challenges posed by the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release of a pathogen in an urban setting. Journal of Urban Health, 78(2), 382-391.
da Silva Medeiros, F. N., & Massarani, L. (2010). Pandemic on the air: A case study on the coverage of new influenza A/H1N1 by Brazilian prime time TV news. Jcom, 9(03), A03.
Danielson, W. A., & Lasorsa, D. L. (1997). Perceptions of social change: 100 years of front-page content in The New York Times and The Los Angeles Times. Tex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Methods for drawing statistical inferences from texts and transcripts, 103-116.
Danielson, W. A., Lasorsa, D. L., & Roberts, C. W. (1997). Tex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methods for drawing statistical inferences from texts and transcripts. LEA's communication series.
Dauber, C. (2001). Image as argument: The impact of Mogadishu on US military intervention. Armed Forces & Society, 27(2), 205-229.
De Vreese, C. H. (2005). News framing: Theory and typology. Information Design Journal & Document Design, 13(1).
Dillard, J. P., & Meijnders, A. (2002). Persuasion and the structure of affect. The persuasion handbook: Developments in theory and practice, 309-327.
Doak, C. C., Doak, L. G., Friedell, G. H., & Meade, C. D. (1998). Improving comprehension for cancer patients with low literacy skills: strategies for clinicians. CA: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 48(3), 151-162.
Dorfman, L., Wallack, L., & Woodruff, K. (2005). More than a message: framing public health advocacy to change corporate practices. Health education & behavior, 32(3), 320-336.
Dudo, A. D., Dahlstrom, M. F., & Brossard, D. (2007). Reporting a potential pandemic: A risk-related assessment of avian influenza

coverage in US newspapers. Science Communication, 28(4), 429-454.

Dunwoody, S., & Peters, H. P. (1993). The mass media and risk perception. Risk is a construct. Perceptions of risk perception. Knesebeck, Munich, 297-312.

Elderd, B. D., Dukic, V. M., & Dwyer, G. (2006). Uncertainty in predictions of disease spread and public health responses to bioterrorism and emerging diseas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3(42), 15693-15697.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Erbring, L., Goldenberg, E. N., & Miller, A. H. (1980). Front-page news and real-world cues: A new look at agenda-setting by the medi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49.

Eveland Jr, W. P., Hutchens, M. J., & Shen, F. (2009). Exposure, attention, or "use" of news? Assessing aspects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central concept in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3(4), 223-244.

Fahmy, S., Cho, S., Wanta, W., & Song, Y. (2006). Visual agenda-setting after 9/11: Individuals' emotions, image recall, and concern with terrorism. Visual Communication Quarterly, 13(1), 4-15.

Fink, S. (1986). Crisis management: Planning for the inevitable.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Freimuth, V. S., Musa, D., Hilyard, K., Quinn, S. C., & Kim, K. (2014). Trust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2009 H1N1 pandemic.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93), 321-339.

Freimuth, V., Linnan, H. W., & Potter, P. (2000). Communicating the threat of emerging infections to the public.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6(4), 337.

Freudenburg, W. R. (1988). Perceived risk, real risk: Social science and the art of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Science, 242(4875), 44-49.

Gadekar, R., Krishnatray, P., & Ang, P. H. (2014). Framing of the H1N1 Flu in an Indian Newspaper. Journal of Creative Communications, 9(1), 49-66.

Gamson, W, A.,&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unclear pow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Gamson, W. A., Croteau, D., Hoynes, W., & Sasson, T. (1992). Media imag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1), 373-393.

Gao, F., Zhang, M., & Sadri, S. (2011). Newspapers use more sources compared to health blogs in H1N1/swine flu coverage. Newspaper Research Journal, 32(2), 89-96.

Gibson, R., & Zillmann, D. (2000). Reading between the photographs: The influence of incidental pictorial information on issue percep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2), 355-366.

Gifford, R., & Comeau, L. A. (2011). Message framing influences perceived climate change competence, engagement, and behavioral intention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14), 1301-1307.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US: Harvard University Press.

Graber, D. A. (1990). Seeing is remembering: How visuals contribute to learning from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40(3), 134-156.

Hallahan, K., Holtzhausen, D., Van Ruler, B., Verčič, D., & Sriramesh, K. (2007). Defining strategic commun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trategic communication, 1(1), 3-35.

Hilton, S., & Hunt, K. (2010). UK newspapers' representations of the 2009-10 outbreak of swine flu: one health scare not over-hyped by the media?.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jech-2010.

Hong, S. C. (2013). Scare sells? A framing analysis of news coverage of recalled Chinese product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3(1), 86-106.

Hong, T. (2007). Information control in time of crisis: The framing of SARS in China-based newspapers and Internet sources. CyberPsychology & Behavior, 10(5), 696-699.

Houts, P. S., Doak, C. C., Doak, L. G., & Loscalzo, M. J. (2006). The role of pictures in improving health communication: a review of research on attention, comprehension, recall, and adherence.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61(2), 173-190.

Hui, D. S., Perlman, S., & Zumla, A. (2015). Spread of MERS to South Korea and China. The lancet Respiratory medicine, 3(7), 509-510.

Hutchings, V. L. (2003). Public opinion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How citizens learn about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Iyengar, S. (1994).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hnson, B. B., & Slovic, P. (1995). Presenting uncertainty in health risk assessment: initial studies of its effects on risk perception and trust. Risk analysis, 15(4), 485-494.

Jones, K. E., Patel, N. G., Levy, M. A., Storeygard, A., Balk, D., Gittleman, J. L., & Daszak, P. (2008). Global trends i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Nature, 451(7181), 990.

Kinlaw, K., Levine, R. J. (2007). Ethical guidelines in pandemic influenza. A report of the Ethics Subcommittee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Directo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tlanta

Kitzinger, J. (2000). Media templates: patterns of association and the (re) construction of meaning over time. Media, Culture & Society, 22(1), 61-84.

Kolbe, R. H., & Burnett, M. S. (1991). Content-analysis research: An examination of applications with directives for improving research reliability and objectiv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2), 243-250.

Krishnatray, P., & Gadekar, R. (2014). Construction of death in H1N1 news in The Times of India. Journalism, 15(6), 731-753.

Lee, S. T. (2014). Predictors of H1N1 influenza pandemic news coverage: Explic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framing and news release sel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trategic Communication, 8(4), 294-310.

Lee, S. T., & Basnyat, I. (2013). From press release to news: mapping

the framing of the 2009 H1N1 A influenza pandemic. Health Communication, 28(2), 119-132.

Lee, S., & Paik, J. E. (2017). How partisan newspapers represented a pandemic: the case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7(1), 82-96.

Lipkus, I. M., & Hollands, J. G. (1999). The visual communication of risk. JNCI monographs, 1999(25), 149-163.

Liu, B. F., & Kim, S. (2011). How organizations framed the 2009 H1N1 pandemic via social and traditional media: Implications for US health communicators. Public Relations Review, 37(3), 233-244.

Liu, J., & Han, G. K. (2013). Framing H1N1 influenza in Chinese TV news. Quarterly Journal of Chinese Studies, 2(1), 18.

Lubitow, A. (2013). Collaborative frame construction in social movement campaigns: Bisphenol-A (BPA) and Scientist-Activist mobilization. Social Movement Studies, 12(4), 429-447.

Luther, C. A., & Zhou, X. (2005). Within the boundaries of politics: News framing of SAR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2(4), 857-872.

Messaris, P., & Abraham, L. (2001). The convergence of agenda setting and framing. Framing public life, 337-353.

Mishel, M. H. (1988). Uncertainty in illness. Image: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4), 225-232.

Mitroff, I. I. (1988). Crisis management: Cutting through the confusion. MIT Sloan Management Review, 29(2), 15.

Mummert, A., & Weiss, H. (2013). Get the news out loudly and quickly: the influence of the media on limiting emerg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PloS one, 8(8), e71692.

Mummert, A., Weiss, H., Long, L. P., Amigó, J. M., & Wan, X. F. (2013). A perspective on multiple waves of influenza pandemics. PloS one, 8(4), e60343.

Nelson, T. E., & Oxley, Z. M. (1999). Issue framing effects on belief importance and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61(4), 1040-1067.

Newhagen, J. E. (1998). TV news images that induce anger, fear, and disgust: Effects on approach-avoidance and memor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2(2), 265-276.
Newhagen, J. E. (1998). TV news images that induce anger, fear, and disgust: Effects on approach-avoidance and memor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2(2), 265-276.
Nikora, L. (2008). Constructing health news: possibilities for a civic-oriented journalism. Health:, 121), 43-66.
Oh, D. C., & Zhou, W. (2012). Framing SARS: A case study in Toronto of a mainstream newspaper and a Chinese ethnic newspaper. Atlantic Journal of Communication, 20(5), 261-273.
Pan, P. L., & Meng, J. (2016). Media Frames across Stages of Health Crisis: A Crisis Management Approach to News Coverage of Flu Pandemic.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24(2), 95-106.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1), 55-75.
Parmet, W. E. (2010). Pandemics, Populism and the Role of Law in the H1N1 Vaccine Campaign. . Louis UJ Health L. & Pol'y, 4, 113.
Price, V., Tewksbury, D., & Powers, E. (1997).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s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s. Communication research, 24(5), 481-506.
Rathore, M. H., Runyon, J., & Haque, T. U. (2017).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dvances in pediatrics, 64(1), 27-71.
Reynolds, B., & W. SEEGER, MATTHEW. (2005). Crisis and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as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0(1), 43-55.
Sandell, T., Sebar, B., & Harris, N. (2013). Framing risk: communication messages in the Australian and Swedish print media surrounding the 2009 H1N1 pandemic.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1(8), 860-865.
Sandman, P. M. (1987). Risk communication: facing public outrage. EPA J., 13, 21.
Sandman, P. M. (1989). Hazard versus outrage in the public perception of risk. In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pp. 45-49). Springer, Boston, MA.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Schudson, M. (1994). Culture and the integration of national societi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46, 63-63.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Shih, T. J., Wijaya, R., & Brossard, D. (2008). Media coverage of public health epidemics: Linking framing and issue attention cycle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print news coverage of epidemic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1(2), 141-160.
Siegel, J. D. (2007).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2007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care settings. http://www. cdc. gov/ncidod/dhqp/gl_isolation. html.
Singer, E., & Endreny, P. M. (1993). Reporting on risk: How the mass media portray accidents, diseases, other hazards. Russell Sage Foundation.
Smith, R. D. (2006). Responding to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lessons from SARS on the role of risk perception,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Social science & medicine, 63(12), 3113-3123.
Snow, D. A., & Benford, R. D. (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1), 197-217.
Snow, D. A., Rochford Jr, E. B., Worden, S. K., & Benford, R. D. (1986).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481.
Snow, D., Benford, R., Klandermans, B., Kriesi, H., & Tarrow, S. (1988). From structure to action: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across cultures. Greenwich, Conn.: JAI Press, chapter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197-217.
Sturges, D. L. (1994). Communicating through crisis: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survival.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7(3), 297-316.
Tankard Jr, J. W. (2001).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Framing public life (pp. 111-121). Routledge.

Tewksbury, D., & Scheufele, D. A. (2007). Special issue on framing, agenda setting, & priming: Agendas for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8-8.

Truman, B. I., Tinker, T., Vaughan, E., Kapella, B. K., Brenden, M., Woznica, C. V., ... & Lichtveld, M. (2009).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and response among immigrants and refuge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S2), S278-S286.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Ungar, S. (2008). Global bird flu communication: Hot crisis and media reassurance. Science Communication, 29(4), 472-497.

Valkenburg, P. M., Semetko, H. A., & De Vreese, C. H.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50-569.

van der Meer, T. G., & Verhoeven, P. (2013). Public framing organizational crisis situations: Social media versus news media. Public Relations Review, 39(3), 229-231.

Wanta, W. (1988). The effects of dominant photographs: An agenda-setting experiment. Journalism Quarterly, 651), 107-111.

Wilson, N., Thomson, G., & Mansoor, O. (2004). Print media response to SARS in New Zealand.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08), 1461.

Wimmer, R. D., & Dominick, J. R. (2013). Mass media research. Cengage learning.

Wimmer, R., & Dominick, J. (2011).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 Boston: Wadsworth.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fear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s Monographs, 59(4), 329-349.

Wong, N., Harvell, L., & Anaz, N. (2010). Framing the H1N1 flu pandemic: Effect of visual and textual frames on perceptions of flu susceptibility, severity, and attributions for its global outbreak. In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pp. 1-3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 WHO interim guida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 WHO

Interim Guidance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cited 2017 May 21]. Available from: http://www.who.int/influenza/preparedness/pandemic/influenza_risk_management/en/

You, M., Joo, J., Park, E., Noh, G. Y., & Ju, Y. (2017).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ontent in Newspaper Editorials: Public Health Concern or Leadership Issue?. Science Communication, 39(3), 313-337.

Young, M. E., King, N., Harper, S., & Humphreys, K. R. (2013). The influence of popular media on perceptions of personal and population risk in possible disease outbreaks. Health, risk & society, 15(1), 103-114.

Zillmann, D. (2006). Exemplification effects in the promotion of safety and health. Journal of Communication, 56, S221-S237.

Zillmann, D., & Brosius, H. B. (2000). Exemplification theory.

Zillmann, D., & Gan, S. L. (1996). Effects on threatening images in news programs on the perception of risk to others and self. MEDIENPSYCHOLOGIE-WIESBADEN-, 8, 288-305.

Zillmann, D., Gibson, R., & Sargent, S. L. (1999). Effects of photographs in news-magazine reports on issue perception. Media Psychology, 1(3), 207-228.

Abstract

News Framing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 A Content Analysis Of Front Pages of Korean Newspapers' H1N1 and MERS Outbreak Text / Visual News Coverage

Esuri, Park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 frame of infectious diseases in Korean news media from a social mobilization point of view.

For this purpose, a content analysis of front pages of 10 national newspapers was conducted. Analytical frames were coded into three categories: diagnostic, prognostic, and motivational frame. Diagnostic frame identifies the cause of the problem definition, identification, problem occurrence and proliferation. Prognostic frame seeks solutions to problems and suggest alternatives. Motivational frame defined to promote direct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the public, which includes emotional and moral ele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agnosis frame was the most prominent in the news. Prognostic frame followed and motivational frame is negligible. In the visual information on the front page of the infectious disease, the same trend as the text was confirmed. Among visual materials in the news articles, use of diagnosis frame was salient whereas motivational frame

was almost invisible.

In the frame of the infectious disease report, it was confirmed that the diagnosis frame was prominent at all stages without changing the order of quantitative advantage between diagnosis, prognosis, and motivational frame by crisis progressing stages. However, the diagnostic frame was most prominent in the crisis phase, which is the early stage of the health crisis, whereas the prognostic frame was most prominent in the crisis phase, and the motivational frame was the most prominent in the low level.

The frame of visual information showed a similar change pattern according to crisis stages. The only difference is that photographs with motivational frame tend to be more prominent at the end of the crisis than at the lunar phase, as they did with tex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clarifying the purpose of the news frame research,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results are secured. In other words, rather than deriving the frames derive from an inductive way, this study proposes diagnostic / prognostic / motivational frame that have already secured reliability as a mobilization strategy in sociology, and confirmed their usefulness by applying them. Second, this study extended the scope of infectious disease news framing research by including visual information articles in frame analysis subjects. Third, this study divided the report into stages in consideration of the strategic process of frame presentation discussed for the success of the social m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mobilization perspective. Since then, the government's responses and policy responses to infectious diseases have been divided into different stages of crisis analysis. This suggests the need to develop strategies and needs for public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by dividing media coverage into crisis stages and observing frame changes.

Keywords : Emerging Infectious Disease, Text Framing, Visual Framing, Front pages of News Papers, diagnostic/prognostic/motivational frame, Content Analysis, stages of crisis, The Social Mobilization Perspective
Student Number : 2016-24025